

연구총서 01-15

•

북한문화의 수용실태 조사

이 우 영

통 일 연 구 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가 남북한간 상호이해 증진으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생각하지만, 낯선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오히려 남북한간의 거리감이 넓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남북한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적대적 대결구조하에서 상대문화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갖기는커녕 상대문화를 비판하는데 급급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각종 교류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북한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문화를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한문화 수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문화교류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점차 활성화된 문화교류가 6·15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화해협력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 평화적 공존의 출발점이 상호이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문화교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교류가 반드시 남북한간 이질감을 극복하거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상대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교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문화교류를 통하여 북한문화를 남한 주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문화교류과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문화의 수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첫째는 질문지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질문지와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둘째는 면접법으로 북한문화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는 내용분석법이다. 방송에서 방영한 북한관련 프로그램 및 인터넷의 북한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문화에 대하여 시청자 등이 홈페이지에 올린 감상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영화감상문도 내용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 이론적 배경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화전파(diffusion)와 문화이식(cultural acculturation)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화 접촉이 문화변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경우 두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더욱 많다.

문화접촉에 따른 갈등과 관련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은 헌팅톤(S. P.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 *The Clash of Civilization*』과 뮐러(Harald Müller)의 『문명의 공존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사이드(Edward W. Side)의 『문화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갈등에 대한 헌팅톤, 뮐러, 그리고 사이드의 견해는 서로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갈등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

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 사이드의 이론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남북한간의 문화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문화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정도와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요소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에 비해서 문화유형이나 문화체계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의 경우가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또한 접촉하는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는 점도 갈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갈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문화가 접촉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관계와 유사한 문화적 갈등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일랜드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상황과 남북한의 상황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체제(혹은 집단)가 갈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일랜드의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 문화갈등에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 못지 않게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화적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갈등이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독립된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여전히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문화적 차이가

점차 희석되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이나 경제성장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2. 북한문화와 남북문화교류의 경향과 특성

최근 북한문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꾸준히 강조될 것이나 그 내용이나 형식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문학예술 분야도 김정일이 명실상부하게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수령의 지위를 계승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김정일을 대상으로 하는 수령형상문학이 점차 활기를 띠 것이다. 넷째,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예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다섯째, 문학예술 작품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창작자인 작가들에 대한 사상적, 조직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여섯째, 김정일이 문학예술에서 혁명성과 생활성, 수령형상문학과 숨은 영웅 형상문학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예정책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은 점차 혁명적인 작품들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변화하는 북한의 문화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개방의 폭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교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을 방문하는 문화교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가 문화교류에 직접 간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넷째, 제3국이 아닌 남북한 현지에

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섯째, 방송과 언론이 결합되는 등 문화교류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문화교류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정치에의 예측성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남북관계가 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비롯된 만큼 문화교류에서도 정부의 몫이 확대되어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문화교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교류에서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분단 상황으로 상대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다.

3. 북한문화 수용 실태

북한문화의 수용실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문화의 문화에 대한 태도는 사회집단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나 교사나 전문가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진다. 초·중·고·대학생까지 비교의 범주에 넣는다면, 젊은세대가 보다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작품의 성격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성격이 적은 전람회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고, 정치적 주장이 거의 없는 만화를 경험한 초

등학생들도 북한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적었다. 또한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경우는 소설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문화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혁명가극을 시청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였다.

넷째,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관심과 같이 북한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문화에 대한 우월주의적 태도, 즉 제국주의문화론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영화를 보면서 내용에 상관없이 웃음을 터뜨린다는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섯째, 북한의 문화의 최근 변화 양상이 남한의 북한문화 수용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 남북문화교류의 함의

남북문화교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상호이해 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문화에 대한 수용실태를 보면 남북한 문화교류가 북한문화 이해에 순기능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비록 북한문화를 경험한 이후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30%를 상회하며, 도리어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도 10%를 넘는다. 문제는 조사 대상자들이 경험한 작품들이 비교적 정치적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은 작품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문화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혁명성이 강한 작품을 접촉하는 경우는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남북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소극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세대가 상대적으로

으로 북한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문화교류의 사회적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남북문화교류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 교류확대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화의 경험확대는 직접적으로 북한문화를 접촉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이나 사회교육 그리고 언론 등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용자의 요구를 문화교류의 우선 순위를 규정하는 것도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과를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집단별로 문화교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험하기를 원하는 북한문화의 장르는 집단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집단별로 교류의 목적이나 방안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여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문화교류를 단순히 남북문제의 차원에서만 추진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문화 구조 정착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 차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4
II. 이론적 배경	8
1. 문화접촉과 문화 갈등	8
2. 적대적 문화의 접촉 사례 연구	20
III. 북한문화와 남북문화교류의 경향과 특성	36
1. 북한문화의 경향	36
2. 정상회담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특성	44
IV. 북한문화 수용 실태	51
1. 북한문화 경험 실태	51
2. 북한문화의 호감도	58
3. 북한문화와 문화적 이질화	67
4. 북한문화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75
5. 면접 및 내용분석에서 나타난 북한문화의 수용 실태 ..	78
V. 북한문화수용과 문화교류	83
1. 북한문화 수용 실태의 의미	83
2. 남북문화교류의 함의	88

VI. 맺음말 97

참고문헌 100

- 표 차 례 -

<표 1> 문화갈등의 유형 22
<표 2> 집단별 북한문화 경험 여부 52
<표 3> 초등학생 북한문화 경험 여부 53
<표 4> 북한미술 관람객의 북한문화 경험 여부 53
<표 5> 집단별 북한관련 과목 수강 여부 54
<표 6> 집단별 북한문화 배운 경험 여부 57
<표 7> 집단별 북한영화 호감도 60
<표 8> 초등학생의 만화영화 호감도 60
<표 9> 집단별 북한미술에 대한 호감도 61
<표 10> 집단별 북한영화 재미있는 이유 63
<표 11> 집단별 북한영화 재미없는 이유 64
<표 12> 북한영화에서 인상적인 것 65
<표 13> 북한미술 관람자의 긍정평가 이유 67
<표 14> 집단별 문화이질화 평가 69
<표 15> 집단별 언어이질화 평가 70
<표 16> 문화이질화 평가(미술관람객) 71
<표 17> 미술이질화 평가 72
<표 18> 집단별 북한문화 감상 후 격차해소 74
<표 19> 북한미술 관람 후 격차해소 75

<표 20> 북한문화 호감도와 문화이질화 평가	76
<표 21> 북한문화 호감도와 '남북은 하나'에 대한 평가	77
<표 22> 집단별 북한문화 감상 의향	90
<표 23> 경험하고 싶은 장르	94

- 그림 차례 -

<그림 1> 북한문화 경험 여부	51
<그림 2> 장르별 북한문화 배운 경험 여부	56
<그림 3> 북한영화 호감도	58
<그림 4> 북한영화 재미있는 이유	61
<그림 5> 북한영화 재미없는 이유	62
<그림 6> 문화이질화 평가	68
<그림 7> 언어이질화 평가	68
<그림 8> 북한문화 감상 후 격차해소	73
<그림 9> 북한문화 감상 의향	89
<그림 10> 경험하고 싶은 북한문화 장르	92

I. 서론

1. 문제제기

남한 사회에서 통일문제는 그 동안 다양한 입장과 견해들이 대립되는 부분이었다. 정치적 격변기마다 통일방안이나 대북 인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있어왔다.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기존 통일방안과는 다른 통일정책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공식적으로 천명된 통일논의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통일과정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통일방식은 남북한간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한다는 것이다.¹⁾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교류사업이다. 즉 교류를 통하여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남북한이 통일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류의 확대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교류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회문화교류이다. 현재 남북한 교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이지만 경제교류로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²⁾

1) 흡수 통일이나 무력통일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다.

2)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찬성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다를 수 있다. 외적인

2 북한문화의 수용실태 조사

사회문화교류의 확대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그 동안 정부나 민간 부문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여왔다.³⁾ 그러나 교류의 상대인 북한은 자본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경계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문화교류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등 사람의 접촉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남북한 체제격차가 확대된 최근에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 차원에서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북한문화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전선동을 기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남한과의 문화교류는 북한이 지향하는 체제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문화교류의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함에 따라 문화교류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교류는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공동선언 안에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 직후와 같지는 않겠으나 현재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화가 체제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총체라는 교과서적인 개념정을 쫓는다면 남북한 문화교류는 반세기 동안 접촉의 기회가 없었던 남북한 사람들이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화해협력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 평화적 공존의 출발점이 상호이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문화

표현과 달리 일부 사람들은 북한에 자본주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3) 그 동안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이우영,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통일시론』 (1999 봄) 참고.

교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교류가 반드시 남북한간 이질감을 극복하거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동안의 문화적 단절은 남북한 사람들이 상대 문화를 접촉할 기회조차 봉쇄하였고, 도리어 상대 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문화교류는 문화적 충돌로 이어짐으로서 남북한 주민간에 거리감을 확대시킬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집단은 북한문화의 적극적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보수적 성향의 집단은 북한문화의 엄격함 통제를 강조하는 등 북한문화 개방을 둘러싸고 남한 내 다양한 정치세력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문화교류의 확대 자체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상대편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교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가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문화교류를 통하여 북한문화를 남한 주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문화교류과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문화를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북한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의 종류, 수용하는 사회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문화의 수용실태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문화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북한문화의 수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첫째는 질문지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질문지와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둘째는 면접법으로 북한문화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는 내용분석법이다. 방송에서 방영한 북한관련 프로그램 및 인터넷의 북한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북한문화에 대하여 시청자 등이 홈페이지에 올린 감상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영화감상문도 내용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지 조사대상은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하고, 각 대상에게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 뒤 이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또한 최근 개최되는 북한문화관련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반응을 조사하였고, 문학예술 관련 전문가들과는 면접을 통하여 이들의 반응을 분석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초등학생 194명이고, 고등학생 90명, 대학생은 244명이고⁴⁾ 일반인으로는 교사 41명이다. 그리고 미술전람회를 관람한 시민은 101명이다. 설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설문지는 별도로 작성하였고, 미술전람회 관람객도 경험한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부록 참조). 그러나 북한문화에 대한 호감도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질문은 동일하게 작성하였다. 내용분석의 대상은 인터넷 KBS의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감상문과 대학의 북한의 이해 과목 수강생의 영화감상문을 대상으

4) 대학생들의 경우 사전 조사를 겸해서 두 가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서도 대학생의 총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진다. 사전조사와 동일항목이 있는 경우는 두 집단의 응답을 총괄하여 분석하였고, 사전조사에 없는 항목은 본 조사의 결과만 분석하였다.

로 하였다. 이 밖에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북한음악을 전공하는 학자, 대학원에서 북한문제를 전공하는 학생들 인터뷰 대상이다.

조사 시점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2001년 5월과 7월에 걸쳐 시행하였고, 고등학생과 교사는 10월에 시행하였다. 미술전람회는 2001년 6월 20일에서 7월1일에 걸쳐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 북한미술 특별전'을 활용하였다.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영화를 포함한 북한 문학예술작품들의 감상은 제한되어 있다. 많은 작품들이 보안관리 대상이며, 제한된 장소에서 허용된 작품들만이 공개 가능하다. 이러한 까닭에 조사를 위해서 통제된 상황을 만들지 못하였으며, 현재 각급 학교 북한관련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⁵⁾ 교사들의 경우는 교사 연수과정의 북한영화감상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감상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도 연구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과를 담당한 교사와 교수 즉, 수업 진행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 조사 대상이 감상한 주요 작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살아있는 영혼들(2000) : 2차세계대전 종전후 징용 및 징병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조선인들의 귀환선 우베이마르호가 일본 근해에서 침몰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5) 현재 북한영화를 시청하는 것은 통일부 북한자료실을 비롯하여 몇몇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TV를 통하여 북한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으며, 북한영화 '불가사리'가 극장에서 상영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북한관련 프로그램에서 북한영화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업시간에 북한영화를 보여주는 것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학교에 직접 와서 보여주어야 한다. 이 밖에 몇몇 언론사에서 북한영화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엄격하게 따진다면 보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사회과학에서 문화 수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통제된 상황을 만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6 북한문화의 수용실태 조사

것이 주제이다.

- 청춘이여(1998) : 평양의 체육가족을 소재로한 영화. 운동선수인 딸들이 연애하는 과정과 아들의 결혼 문제 등 일상사를 다루고 있다.
- 사랑의 노래(1982) : 평양산원을 무대로 간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주인공의 직장생활과 연애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평양산원을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민족과 운명(1995) : 다부작 영화의 일부로 강선체철소를 무대로 한 영화. 주인공이 헌신적인 노동 생활을 주로 그리고 있다.
- 영리한 너구리, 금도끼와 은도끼, 나비와 수탉, 소년장수, 호동왕자와 낙랑공주(1980~1990): 북한의 만화영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장편 극영화이다.

미술 작품의 경우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조선화로서 인물화나 자연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이 관람의 영화와 미술작품 등은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적은 작품들이 대부분으로서 북한 문학예술의 성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사대상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북한영화를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교사들은 비교적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⁶⁾ 대학생들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조사 대상 대학생 가운데는 북한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역시 대학생 일반의 견해를 대변

6)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 「화해 평화통일교육 전국모임」으로 영상자료 활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 모임은 진보적 교사단체인 전교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화해평화통일교육 전국모임』에 대해서는 cafe.daum.net/edutongil 참조.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대부분이 북한영화 혹은 미술작품을 처음으로 겪어 보았다고 할 정도로 북한문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문화에 대한 남한 주민의 수용실태를 전망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접촉과 문화 갈등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문화전파(diffusion)이다. 문화전파란 글자 그대로 한 문화의 요소나 특성들이 다른 문화로 번져나가는 것을 뜻한다.⁷⁾ 이 경우 특정한 문화적 항목이나 문화 유형의 전달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된다. 고려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와서 의류문화가 변화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변동은 문화전파로 말미암아 일어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도 문화전파의 경우가 적지 않은데, 산아제한이 가족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문화이식(cultural acculturation)이다. 문화이식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영향을 끼쳐, 그 중 하나 또는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문화이식에는 문화적 동질화가 진행되거나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수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문화이식은 제국주의에 따른 식민화, 정복이나 전쟁 혹은 군사적 점령, 대규모의 인구이동의 경우 발생한다. 문화이식은 전체 사회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경제 교역이나 관광, 노동자의 파견, 지식의 전파, 매스미디어 등이 문화이식의 통로가 될 수 있다.⁸⁾

7) R. H. Lauer,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1973), pp. 199~202.

8) W. E. Moore, *Social Change second edition* (N.J.: Prentice-Hall, 1974), p. 90.

문화 접촉이 문화변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경우 두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더욱 많다. 예를 들어 새로운 농업기술이 전파되면, 비록 그것이 더 많은 수확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기존의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저항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연예인을 중심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검색문화는 초기에 머리를 물들인 연예인의 방송이 불허되는 등 기존의 머리문화와 커다란 갈등을 겪었던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하나 혹은 몇몇의 문화적 요소나 특성이 중심이 되는 문화전파의 경우에도 문화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적 틀이 접촉하는 문화이식의 경우에는 문화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화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새로운 매체(new media)의 확산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문화가 이식됨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문화를 유지하여왔던 세대와 디지털세대의 갈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 교포들이 미국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느끼는 것도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디지털문화와 아날로그문화의 갈등은 기술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의 폭이 적을 수 있다. 또한 이민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민국의 주류문화에 동화(assimilation)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갈등은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국주의 침략 혹은 전쟁의 결과로 문화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화갈등이 양상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문화이식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

갈등 혹은 사회적 갈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세력이나 점령국은 문화이식을 정치경제적 지배의 영속화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피지배국가나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연속화에 저항한다.

서구 제국주의세력이 선교사들을 앞세워 식민지국가에 진출하면서, 토착종교와 갈등을 겪는 등 문화이식과 문화갈등이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다. 한국도 식민지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가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강제한 것이나, 이에 반대하여 조선인들이 조선말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심각한 문화적 갈등을 겪은 바가 있다.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의 갈등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이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이식의 경우가 문화전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갈등적인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침략과 착취 혹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정치경제적 갈등과 결합되기 때문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문화이식으로 인한 문화접촉이 문화전파에 따른 문화접촉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문화전파의 경우 문화의 부분요소들이 접촉함에 따라 접촉면이 제한적이다. 반면에 문화이식의 경우는 서로 다른 문화유형이나 문화체제가 총체적으로 접촉한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각각의 문화요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유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 가운데 가치나 규범과 같은 요소들은 다른 문화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변화에 저항적인 경향이 있으며,⁹⁾ 외부

9) 예를 들어 성에 대한 가치나 규범은 옷 차림과 같은 유행에 비해서 변화의 속도가 훨씬 느리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제도와 같은 물질적 문화에 비하여 비물질적 문화의 변화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Willan F. Ogburn, *Social Change* (N.Y.: Viking Press, 1922),

적인 요소들과 갈등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접촉에 따른 갈등과 관련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은 헌팅톤(S. P.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문명충돌론은 기본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국제정치의 변화를 전망하는 글이다. 헌팅톤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 경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라고 보고 있다.¹¹⁾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은 서로 다른 문명은 항상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냉전체제가 해소된 이후 각각의 문명은 독자성을 심화시키면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팅톤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한 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서구문명의 승리로 보고 있지 않다.¹²⁾ 전세

pp.200~212.

- 10) Samuel P. Huntington,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 3, Summer (1993). 단행본은 *The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충돌론』,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1997) 참조.
- 11) 윗 글, p. 20. 헌팅톤이 글에서 쓰고 있는 개념은 문명(civilization)이지만, 실제로는 문화(culture)의 개념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헌팅톤은 문명과 문화를 한 사회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 가치, 기준, 제도,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문명은 크게 쓰여진 문화이며, 역사적 근접성, 공동의 가치체계, 생활방식, 세계상,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정치적 사고방식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헌팅톤은 문명의 규정에서 종교를 강조한다. 그는 주요 종교를 구심점으로 세계의 문명을 1. 서구 기독교 문명(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2. 동방 정교 문명(슬라브, 그리스), 3. 이슬람 문명(북부아프리카에서 근동을 지나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일부까지), 4. 힌두 문명(인도), 5. 중화 또는 유교 문명(중국과 그 주위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6. 일본 문명, 7. 아프리카 문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윗 글, pp. 48~56.
- 12)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굴복함으로써 '역사의 종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참조.

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리우드 영화나 코카콜라의 확산은 서구문화(기독교)의 확산이 아니라 단순히 대중문화의 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념에 기반한 냉전적 갈등구조 대신에 점차 문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원천은 종교라는 것이다. 또한 각 문명은 국가와 연결되며, 대표국가는 패권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구의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문명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슬람국가에 무기를 팔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이슬람과 유교의 동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은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는데,¹³⁾ 헌팅톤의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뮐러(Harald Müller)라고 할 수 있다. 뮐러는 헌팅톤에 대한 대안이라는 부제가 붙은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을 통하여 헌팅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¹⁴⁾ 헌팅톤의 이론적 출발점이 국제체제란 완전히 무질서한 혼란이며 각 국민국가는 그 안에서 권력투쟁에 몰두한다고 전제하는 현실주의라면, 뮐러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전통에 선 자유주의자 또는 비판적 근대화론자라고 할 수 있다.¹⁵⁾

뮐러에게 현대 정치체제의 전형은 권력국가가 아니라 교역국가가이며, 교역국가의 특징은 정부가 경제계의 요구에 개방적이고, 외교목표를 설정할 때 경제계를 위시한 이익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국가들은 세계내의 역동성을 강

13) 헌팅톤의 문명충돌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Foreign affairs*, vol. 72, no. 4 pp. 2~26 참조.

14) Harald Müller,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문명의 공존』, 이영희 역 (서울: 푸른숲, 2000).

15) 구춘권, “문명의 충돌과 공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두 가지 전망,” <http://jpreview.jinbo.net/journal/0012/chunkeun.html>.

화하면서 경쟁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세계적인 수준의 근대화이며 결과적으로 문명간 커뮤니케이션도 더욱 강화된다.

윌러는 헌팅톤이 세계를 대결로 단순화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적과 아군’의 전형적인 이분법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헌팅톤이 문명충돌의 예로 들고 있는 걸프전이나 보스니아내전 등이 실제로는 인종이나 영토문제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전쟁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유교 동맹의 증거로 삼고 있는 중국 및 북한의 무기 판매의 문제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 판매국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와 더불어 이슬람이나 아시아국가들의 호전성을 주목하는 헌팅톤의 단선적인 이해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명의 ‘충돌’과 ‘공존’이라는 상반되는 글 제목이 상징하고 있듯이 헌팅톤과 윌러의 견해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와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도 문명(혹은 문화) 갈등이 극복가능한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헌팅톤은 문명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까닭에 가능한 한 접촉의 면을 줄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윌러의 경우는 전세계적인 수준의 근대화라는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각 문명은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헌팅톤은 문명의 주체로서 국가를 강조하는 반면, 윌러는 범국가적인 NGO나 ‘CNN’ 등의 다양한 사회조직을 문화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갈등에 대하여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학자는 사이드(Edward W. Side)라고 할 수 있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사이드는 그가 살아온 지역에서 배태된 경험으

로부터 서구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서구중심주의의 편견의 골수들을 해체하는 데 그의 지적 작업을 집중시켜왔다. 서구인이 동양인에 대해 가진 편견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른다.¹⁶⁾ 그에게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알지 못하는 타 문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문화적 편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서양의 동양 지배의 프로젝트와 맞물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과학적 “표상체계”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을 자본주의 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심지어 사회주의자들까지도 공유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동양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칼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부뤼메르 18일”에 나오는 말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론은 무엇보다도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인 사고관에 대한 해체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¹⁷⁾ 문명/야만, 선/악, 정교도/이교도, 물질/정신과 같은 서양과 동양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검토한 결과, 그에 의하면 오리엔탈리즘이란 “오리엔트, 곧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하는 것”

16) 팔레스틴 출신 사이드는 서구 지식-체계의 담론과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사이드는 팔레스틴인이면서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의 강력한 비판자이면서도 동시에 회교 분리주의에도 반대하는 그의 정치적 입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박홍규 역(서울: 교보문고, 1991);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 김성곤·정정호 역(서울: 도서출판 창, 1995) 참조.

17)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문화 바로 읽기』(서울: 소나무, 1997), pp. 210~212.

으로 “문화적이고 심지어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동양의 모습들을 제도나 어휘, 학문, 심상, 강령, 심지어 식민지 관료체제나 식민지적 스타일에 도움을 받아 하나의 담론 양식으로 표현하고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권위를 세우려는 서양의 스타일이라는 것이다.¹⁸⁾ 사이드가 추적하고 있는 점은 서양의 정치적인 폭력과 탄압의 증거들이 아니라, 서양의 동양에 대한 지식 축적 과정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그렇지만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들과 스타일들이다. 그래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을 하나의 담론으로 고찰하지 않고서는 유럽문화가 동양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상적으로 다루어왔고 생산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제국주의의 이해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즉 제국주의는 문화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구의 제국주의 담론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제국주의가 외면적으로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사이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를¹⁹⁾ 통한 ‘다문화주의(multicul-

18)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p. 3.

19) 사이드로 시작되는 탈식민 이론이 전통적인 반식민 저항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이론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프랑스 철학에 힘입어 서양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휴머니즘과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주의는 역사가 발전되거나 모든 인류가 보편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였을 때 극복된다는 식으로 식민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주의는 서구와 비서구의 존재 방식 자체이며 이들의 대립 관계가 식민지 문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탈식민 이론은 학문의 세계에서 새로운 담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과거의 반식민 저항 이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이론의 의의를 일반적인 탈식민주의 문학과 어느 정도는 이론적인 차원에

turalism)’를 강조한다. 탈식민주의는 비단 식민지 시대뿐 아니라 독립을 한 후에도 계속 남아 파괴적인 영향력을 생활화하고 있는 식민지의 잔재를 탐색해서 그것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것들에 대항하자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가시적인 억압보다 불가시적인 억압구조를 다루며 직접적인 해방과는 차이를 보이는 상징적인 식민성을 다루게 된다. 특히 현대와 같은 문화적 합병 상태에서는 다문화적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 중심적인 메트로폴리탄 권력과 그들이 만들어 경전적 지배문화를 폐지하고, 주변에서 중심의 언어를 전유해서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사이드의 전망은, 문명간의 우열과 갈등이 아닌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리고 동양 대 서양, 기독교 대 이슬람 및 유교의 대결을 의미하는 문명충돌과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닌 공존과 화해를 통해서 다문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팅톤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문화적 우월감과 문화적·인종적 편견이 내포되어 있는 오리엔탈리즘과 문명충돌론은 대결과 갈등으로 위기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라고 보고 있다.

서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설명한 탈식민주의 문학론을 탈식민주의 문학 비평(postcolonial criticism) 그리고 사이드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탈식민이론(postcolonial theory)이라고 구별하기도 한다. 고부웅,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http:// member.namo.co.kr/~hrsong/text3-4.htm](http://member.namo.co.kr/~hrsong/text3-4.htm);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3』 (서울: 또하나의 문화, 1994);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호 (1992) 참조. 탈식민주의는 문화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제기된 바 있다. 역사분야의 탈식민주의론에 대해서는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0) 참조.

20)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pp. 28~29.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호 (1992) p. 14.

헌팅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윌러와 사이드는 공유점이 있다. 특히 헌팅톤은 문화갈등이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윌러와 사이드는 문화공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이 확연하다. 그러나 윌러와 사이드의 헌팅톤 비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윌러의 경우는 실용주의 그리고 근대화라는 세계사적인 추세에서 타문화와의 갈등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사이드는 다른 문화의 인정을 통하여 문화적 갈등이 문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윌러가 문명의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구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이드가 헌팅톤이나 윌러와 다른 또 다른 점은 문화갈등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헌팅톤이나 윌러는 서로 다른 문명이나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사이드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 특히 문화제국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문화적 갈등이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서구 문화는 낯선 문화를 구별하고, 제국주의적 지배를 위해 낯선 문화에 대한 서구문화의 우월주의적인 담론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갈등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갈등에 대한 헌팅톤, 윌러, 그리고 사이드의 견해는 서로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갈등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지만, 문화적 공존을 생각하는 윌러나 사이드의 경우에도 문화갈등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일반적인 문화적 갈등의 양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여 왔으며, 현재도 언어를 포함하여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요소들이 적지 않다. 현재 남북한 문화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은 분단이후 서로 다른 사회체제를 발전시켜오면서 이에 적합한 문화구조가 형성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적 역사적 경험의 차이로 문명충돌이 생겨난다는 헌팅톤의 입장은 남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명충돌이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방향성도 남북한의 경우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는 사회정치적 차이에 따라 문화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이드의 이론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남북한간의 문화적 갈등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남북한 문화유형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문화적 차이보다는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정치경제적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남한은 자본주의 이념에 따른 문화적 유형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문화를 강조하면서²¹⁾ 상대 문화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남북한이 상대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체제 경쟁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우월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남북한 문화갈등이 문화 자체보다는 남북관계라는 외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던 시기에는 상대문화에 대한 부분적인 접촉마저도 금지되어 있었다. 현재에도 남

21) 남북한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개념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통일연구』 2권2호 (1998) 참조.

한의 경우는 보안법이라는 법적 규범으로 북한문화를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의 향유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남한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평가가 기초를 이루었다.²²⁾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최근에는 대중가요를 비롯한 남한문화 수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남북한 문화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되었으며, 통일을 지향한다면 문화적 갈등은 종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통일의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명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헌팅톤과 달리 문화공존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사이드의 견해가 더욱 적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드는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문화관 뿐만 아니라 이에 반발하여 제3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수주의적 문화관도 반대한다. 대신 그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적대적인 문화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2) 1985년 남북이산가족상봉과 더불어 이루어졌던 예술단 공연 이후 남 북한은 각각 언론 등을 통하여 상대문화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 17, 숙명여자대학교, 1999 참조.

2. 적대적 문화의 접촉 사례 연구

다른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문화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정도와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요소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에 비해서 문화유형이나 문화체계가 접촉하는 문화이식의 경우가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다. 또한 접촉하는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어느 정도 다른가 하는 점도 갈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조 말기에 유입된 천주교가 전통적인 유교문화와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 것은 두 문화가 근본 가치부터 행위규범에까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과거 유교문화권이었던 중국 문화와 한국문화가 접촉하거나, 현재 미국문화와 유럽문화가 접촉하는 경우는 문화적 갈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문화갈등의 정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은 문화가 접촉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문화적 갈등이 보다 첨예화될 수 있으며, 문화주체들간의 관계가 조화롭다면 문화적 갈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적대적인 상황은 국가간의 관계와 같이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계급 혹은 집단과 같이 사회체제 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제국주의 침략기에 나타나는 제국주의 문화와 식민지문화의 갈등이 앞의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나 라틴아메리카와 서구문화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갈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²³⁾ 반면에 한 사회체

23) Fred E. Jand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cond edition* (London: Sage Pub., 1998), pp. 75~76; Kay B. Warren, "Interpreting La Violencia in Guatemala,"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ed. by

제 내에서 계급을 포함한 집단간의 적대적인 관계가 문화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로 자본가 문화와 노동자 문화의 갈등이나 미국 등지의 흑백인종간 문화적 갈등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는 문화적 차이의 정도와 문화접촉의 상황은 상호 결합되어 문화갈등의 정도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표 1> 참조).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는 상황이 비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심각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문화갈등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주체간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면 문화적 갈등은 증폭되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차이가 크고 문화주체간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 문화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고 관계도 비적대적이라면 문화갈등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다.

Kay B. Warre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3), pp. 29~50; Davida Wood, "Politics of Identity in a Palestinian Village in Israel,"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pp. 87~116 참조.

<표 1> 문화갈등의 유형

문화 접촉 상황	문화 차이 정도	
	차이가 많음	차이가 적음
적 대 적 상황	㉠	㉡
비적대적 상황	㉢	㉣

- ㉠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미국과 아랍근본주의 문화 간의 갈등
- ㉡ 문화갈등이 실제보다 증폭되어 나타남: 종교 개혁기 신구교의 갈등
- ㉢ 문화갈등이 제도화되어 문화변동으로 이어짐: 해방후 미국문화의 남한문화와의 갈등
- ㉣ 문화갈등이 상대적으로 약화됨: 유럽문화와 미국문화의 갈등

문화적 차이와 문화 주체간의 관계 이외에도 문화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있다. 상대문화를 접촉한 경험의 유무,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의 정도, 미디어 등 문화를 전달하는 통로의 종류, 갈등의 역사적 경험, 언어 등 의사소통의 수단, 이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문화접촉과 문화갈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²⁴⁾ 그러나 문화갈등이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갈등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며, 정치적 갈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문화제국주의에 반발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탈식민지적인 저항문화운동의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²⁵⁾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중문

24) Fred E. Jand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cond edition*, ch.3, ch.4 참조

25) Edward W. Said, 『문화와 제국주의』, pp. 337~451; Michael Hanchard,

화운동의 경우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²⁶⁾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은 앞의 유형가운데 ㉠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각각 자본주의문화와 사회주의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문화체제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오랜 기간 같은 문화를 공유하여왔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같은 언어를 갖고 있으며,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가족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여 많은 문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 자체의 요인보다는 문화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며,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의 사회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증폭되기도 하며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은 전쟁을 통하여 상호적대감을 증폭시켜왔기 때문에 문화적 적대감도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역으로 문화의 적대적 관계는 남북한 양 체제의 갈등을 확산시키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만든 남한 비판영화나 남한에서 만든 반공영화 등은 단순히 문화적 갈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대심을 강화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관계와 유사한 문화적 갈등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일랜드 드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침략과 대규모 이주, 그리고 이에서 비

"Culturalism Versus Cultural Politics,"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참조.

26) 한국사회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최승운 외, 『문화운동론·2』 (서울: 공동체, 1986) 참조.

27) 남북한 문화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참조.

롯된 종교갈등으로 심각한 문화갈등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북아일랜드는 내전을 경험하였고, 이후 신교로 갈라져 테러를 비롯한 폭력적 보복을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150년대에 교황에 의해 영국에 양도되어 12세기에 부분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된 아일랜드에서는 전쟁, 반란, 재산몰수가 잇따랐고, 16~세기에 영국의 지배지역이 확대되면서 아일랜드 공동체의 발전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아일랜드의 전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17세기가 훨씬 지난 뒤, 인구는 다시 늘기 시작했고, 1700년에야 겨우 200만이 되었다. 한편으로 카톨릭 지주 대신 신교도 정복자들이 들어서면서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쌓여갔다.²⁸⁾ 1640년의 반란은 영국의 크롬웰에 의하여 가혹하게 진압되었고,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가혹하게 실시하였다. 신교도의 영국과 카톨릭인 아일랜드는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부재지주와 소작농이라는 계급적 문제까지 결합되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845년부터 1847년에 걸친 감자파동으로 인한 대기근은 11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비슷한 수가 미국 등지로 이민을 떠나 인구의 1/4이 감소할 정도였으나, 영국정부는 이를 방치하여²⁹⁾ 적대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증폭되어온 영국과 아일랜드의 갈등은 외면적으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보여지지만,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 지주

28) Peter Gray, 『아일랜드 대기근』, 장동연 역 (서울: 시공사, 1998), p. 14.

29)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일랜드 토착민의 주식이었던 감자농업이었다. 반면에 부재지주가 관리하였고, 수출품목이었던 밀은 어느 정도 수출 되었다. 영국은 대체 작물의 수입 등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들은 기근의 원인이 아일랜드인의 기질도 돌리거나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로 당연시하기도 하였다. 위의 책, pp. 46~61.

와 노동자라는 계급적 문제 그리고 민족의 문제까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인들은 반란이나 민중봉기 등을 통하여 저항을 가속화하였고, 민족주의를 기치로 한 저항운동은 독립을 선언한 1916년의 부활절 봉기로 절정을 이루었다. 아일랜드의 독립 투쟁은 내전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22년 신교도가 우세한 북부 얼스터 지방을 제외한 아일랜드가 ‘자유국’으로 독립하지만 여전히 영 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다가 1949년 정식으로 공화국으로 인정받게 된다.³⁰⁾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영국 소속으로 남아있었던 북아일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의 신페인당을 중심으로 한 구교세력과 친 영국계 세력과의 갈등이 지속되어왔다.³¹⁾ 1968년부터 구교의 시민권 운동이 시작되었으나 1972년 ‘런던데리(Londonderry)’지역에서 영국군인이 시위군중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³²⁾ 1981년 단식투쟁으로 10명의 공화국주의자들이 감옥에서 사망하면서 이후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폭력적인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지지하는 무장조직 IRA(Irish Republican Army)와 신교 민병대간의 무장투쟁을 선언하였고, 세계적인 분쟁지역이 되었다.³³⁾

30) 박지향, “아일랜드 역사서술: 민족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역사비평』 50 (2000. 봄), pp. 252~261.

31) 독립이후 아일랜드에 상황에 대해서는 Sabine Wichert, *Northern Ireland Since 1945, Second edition* (London: Longman, 1999) 참조.

32) 이 사건은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로 불리고 있다. 피의 일요일에 대해서는 <http://www.megastories.com/ireland/derrymap/rossvill.htm> 참조.

33) IRA는 원래 영국으로부터 북아일랜드 독립과 아일랜드의 재통일을 위해 1919년에 카톨릭교도를 중심으로 결성된 무장투쟁 조직이었다. IRA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북아일랜드 신교도계는 얼스터 민병대를 조직하여 IRA에 대항하였고, 이후 양측의 잦은 충돌은 북아일랜드 분쟁

북아일랜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구교 양측과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거듭하여 1998년 4월 ‘Good Friday Agreement’에 합의하여 북아일랜드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³⁴⁾ 그러나 양측의 강경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테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200년 2월 11일 자치정부 구성을 골자로 한 ‘Good Friday Agreement’는 유보되고 영국정부의 직접 통치가 재개되었다. 따라서 12세기 영국이 지배한 이후 수백년 동안 지속되어온 아일랜드 문제는 아일랜드 공화국 독립으로 일단락 된 것이 아니며, 오늘날까지도 북아일랜드에서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정치사회적 갈등은 자연적으로 사회문화적 갈등을 동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수백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와의 갈등 그리고 식민지 종주국 영국과 피식민지 아일랜드 문화간의 갈등, 친영국계 신교 문화와 민족주의적인 구교 문화와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하면서 토착민과 토착문화를 파괴하였다. 영국식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켈트(celt)문화를 폄하하면서 고유 언어인 켈릭어(gaelic)를 영어로 대체하고, 새로운 가치와 역사를 심었다.³⁵⁾

아일랜드의 주민들은 주로 켈트족으로 B.C. 9세기부터 B.C. 1세기

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양측의 테러로 29년간 약 3,200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유영철,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http://www.kida.re.kr/woww/special/ira.htm>.

34) ‘Good Friday Agreement’에 대해서는 http://news.bbc.co.uk/hi/english/static/northern_irelan/understanding/events/good_friday.stm; <http://www.nio.gov.uk/issues/agreement.htm> 참조.

35) 영국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문화적 이식과 이에 대한 아일랜드의 저항에 대해서는 E. Said, 「문화제국주의」 pp. 387~415 참조.

에 걸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³⁶⁾ 5세기 경부터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신학이 발달하는 등 고유의 게일문화를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이후 영국은 스코틀랜드 지방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이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지배세력이 되도록 하였다. 아일랜드에 이주한 영국인의 중심은 스코틀랜드인들로서 이들도 인종적으로는 동일한 켈트인이었으나, 영국국교를 신봉하며 영국문화를 소지한 집단이었다. 특히 1649년 청교도 혁명에 반대하여 왕정복고를 노리던 찰스 1세를 지지하면서 아일랜드 영주들이 일으킨 반란을 크롬웰이 진압한 이후, 아일랜드 원정을 지원한 영국인들에게 아일랜드 토지를 분배하면서, 영국 출신 지주들은 명실상부한 식민지 아일랜드의 지배계급이 되었고, 이들이 소위 ‘앵글로 아이리쉬 특권지배층(Anglo-Irish Ascendancy)’이 되었다.

새로운 지배세력인 이주 영국인들은 종교적인 차이와 계급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토착 아일랜드인들에게 영국문화를 이식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별적인 문화구조를 유지하였다. 영국국교와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지배집단은 독자적인 학교체제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으며, 음주문화에서 각종 스포츠활동 등 여가활동에서 토착 아일랜드인들과 차이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³⁷⁾

종교적 차이와 계급적 차이는 사회적 분화를 초래하였고, 사회적 분화는 생활과 문화의 차이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가 전면적인 문화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식민지정책으로 고유의 아일랜드어는 점차 영어로 대체되는 등 지배적인 영국문화가 토착 아일랜드인에게 전파

36)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0495075498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0&sec=1>.

37) 황익주, “아일랜드에서의 일상적 사교활동과 사회집단 분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지역연구』 3권 4호 (1994. 겨울), pp. 170~194 참조.

되었고, 엄격한 계급적 분리와 사회적 분화는 서로 다른 집단간의 접촉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근 이후 민족주의 운동이 두드러지고, 독립투쟁이 격화되면서 문화적 문제도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

독립투쟁 과정에서 시인 에이츠 등이 주도한 탈식민화 문화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츠는 반 제국주의적인 저항의 시기에 바다 건너 강대국인 영국의 지배하에 고통받는 민족의 경험과 열망과 복구의 비전을 분명히 표현하는 국민적 시인이었다. 그는 시와 논평들을 통하여 아일랜드인과 아일랜드 문화를 도외시하는 제국주의적인 인식에 맞서 고유한 아일랜드 문화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³⁸⁾

오랜 기간 동안의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아일랜드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에도 양자간의 문화적 갈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는 문화갈등이 외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아일랜드 고유어를 실질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학교에

38) Edward Said, 『문화 제국주의』, p. 387. 사이드는 에이츠가 후기에 들어 토착주의와 신비주의에 흐르고, 파시즘에 의존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다. 에이츠에 이어 라이오넬 존슨, 조지 러셀(AE가 필명), 제임스 스티븐슨, J.M. 그레고리 부인 등 아일랜드의 문인들은 게일어의 구제, 고대 아일랜드 전설과 민화의 회복, 민족감정의 고양 등을 지향하였다. 이들의 문학정신은 단순히 국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20세기 세계문학의 전개에도 커다란 시사를 주었다. <http://100.naver.com/search.naver?adflag=1&cid=AD1007026876119&where=100&command=show&mode=m&id=105701&sec=1>.

서는 아일랜드 고유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도로 안내, 지명 표기를 비롯하여 공식적인 문건에는 아일랜드어가 병기되고 있다. 또한 크리켓 등의 영국의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면 관람자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식민지 시대 창립한 학교로 출발한 더블린의 ‘트리니티(Trinity)’ 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교도들이 입학하지 않는 학교였다. 현재 아일랜드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영국프로축구인 ‘프리미어 리그’이지만, 축구가 영국의 운동이라는 이유에서 크고 좋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아일랜드의 고유한 스포츠인 아일랜드식 하키 헐링(Hurling), 켈릭축구(Gaelic football), 카모기(camogie) 등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서는 션 노스(sean nos)라는 민요가 있는데 아일랜드 민속위원회에 의해 많은 수의 곡이 수집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중음악 분야는 컨트리 음악과 록 음악이 성행하고 있다.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영국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의 경우만 하더라도 영어가 일상언어이고, 주민들은 시청하는 TV 채널은 영국 방송인 BBC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프로축구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포함되어 경기가 치러진다. 또한 수도인 더블린에는 여전히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지명이 별 다른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문화에 대한 아일랜드의 국민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생활에서 향유되고 있는 문화는 영국의 문화가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자신들의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식 아침식사와 구성에서 차이가 없는 아침식사를 굳이 ‘아일랜드식 아침식사(Irish Breakfast)’라고 강조하거나, 스카치와 아이리쉬 위스키를 구별하는 것도 그러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팝 음악가인 유투(U2), 밴 모리슨(Van Morrison), 엔야(Enya), 시네드 오커너(Sinead O'Connor), 크랜베리즈(the Cranberries), 보이존(Boyzone) 등에 대하여 노래차이 보다는 그들이 아일랜드인이라는 이유에서 더욱 열광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적 갈등도 드러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벨파스트(Belfast)’와 런던데리는 북아일랜드의 핵심 도시이지만 동시에 신구교간의 갈등이 뚜렷한 지역이기도 하다. 벨파스트의 도시 중심은 높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같은 동네에서도 신구교의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관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파스트 내 구교 지역에는 아일랜드 국기가 게양되어 있으며 간판 등에는 영어와 아일랜드어가 병기되어 있다. 또한 신교지역은 영국을 상징하는 푸른색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반대로 구교지역에는 아일랜드의 상징색인 초록색으로 주요 건물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주택에는 벽면에 복수를 다짐하는 구호와 투쟁을 선동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런던데리도 마찬가지이다. 구교 중심지역에는 영국경찰에 의해 학살된 주민들을 기념하는 추모비가 있고, 이를 알리는 구조물이 있으며, 보도블럭까지 초록색으로 칠해있다. 주택의 벽면에는 테러리스트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추모하는 사람들, 영국군이 탄압하는 장면 등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신교지역 중심부는 벨파스트와 마찬가지로 푸른색이 칠해져있고, 투쟁을 선동하는 그림들이 주택의 벽들을 뒤덮고 있다. 다만 구조적으로 런던데리의 경우 강의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구교 지역이 강을 경계로 나뉘어있다는 점이 벨파스트와 차이가 있다.

그 동안 폭력이 가장 빈번하였던 벨파스트 지역도 최근에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업기반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관공서나 시장, 병원 등 생활 토대가 다른 것도 아닌 까닭에 신교의 일상생활문화가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벨파트스와 런던데리 지역 사람들과의 면접한 결과 식당이나 먹는 음식 그리고 입는 옷 그리고 여가 생활과 음주문화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의 벽화, 지역을 치장한 색깔과 언어 등 상징체계에서는 신교지역간에 문화적 차이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면접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이들이 전통의 아일랜드 흑맥주를 마시지만, 즐겨 찾는 식당이나 술집은 서로 다르다고 하고 있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구별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출입하는 공간을 구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같은 옷을 입고 동일한 유행을 쫓고 있지만 자신들은 신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⁴⁰⁾ 따라서 상대편 거주 지역에는 가능한 출입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⁴¹⁾ 또한 같은 술을 먹으면서도 주로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고 하는 등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북아일랜드 문화적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갈등의 원인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문화외적 요인에 의하여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신교와 구교라는 종교적 갈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 문

39) 2001년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수행한 현지 조사에서 면접한 주민들의 증언.

40) 북아일랜드 지역의 신교는 인종적으로 동일하며, 신체적 차이도 없다.

41) 런던데리 지역은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이 구교 지역에 있는 까닭에 신교 주민들이 공부나 쇼핑 등을 위하여 구교 지역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교지역의 주민들은 신교지역에 병원 등 각종 복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교지역을 방문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갈등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오랜 기간동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고착된 계급적인 문제도 사회문화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식민지 시절이래 토착 아일랜드인들은 소작인으로 살아왔으며, 1960년대까지도 공직을 포함한 각종 직종의 취업에서 차별을 받아온 까닭에 구교도들은 상대적으로 신교도들에 비하여 빈곤하다. 더욱이 복지 시설의 차별적 분포 등은 생활 수준의 차이로 이어졌고, 이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갈등의 정도는 사회계층 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벨파스트에서 사회적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도심의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부유층 지역에서는 갈등이 외면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또한 북아일랜드 전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서부 농촌지역에서 아일랜드 국기를 게양하는 등 사회문화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 젊은 세대는 문화적 차이가 없으나, 기성세대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뚜렷해 진다.⁴²⁾

넷째, 사회문화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적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을 지향하는 IRA 등 전투적 투쟁 세력과 영국 잔류를 주장하는 신교 민병대 그리고 신페인당(Sinn Fein Party: 구교), 얼스터 당(Ulster Unionist Party: 신교) 등 각각의 배후 정당들은 일반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벨파스트에서도 신구교 지역의 정당 사무실이 구호나 벽화 등을 통하여 상대편을 비판하는 등 갈등과 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다섯째, 폭력적 갈등과 문화적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42) 면접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U2나 시드니 오코너 등 아일랜드 출신 대중 가수들을 즐겨 듣지만, 기성세대들이 술집 등에서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고 한다.

종 테러나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동시에 언어나 문학예술 등 각종 문화적 요소들도 서로 갈등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에서 문화적 갈등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적 갈등은 다시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기도 한다.⁴³⁾

여섯째, 아일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도 동일문화와 이질문화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랜 동안 지나온 역사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경험은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주 등 일상생활 문화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징이나 정치문화 등에 있어서는 친구교간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⁴⁴⁾

일곱째, 아일랜드 공화국의 경우 산업화가 진전되고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화갈등이 양상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달리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적지 않은 혜택을 입었다. 또한 최근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경제발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인들을 경제성장을 이룬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민족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사회에 기반하였던 계층구조 등의 변화로 사회집단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43) Begoña Aretxaga, "Striking with Hunger: Cultural Meaning of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pp. 222~224.

44) 면접 도중 면접자가 런던테리지역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 그 때까지 우호적이었던 피면접자가 정색을 하고 자신들은 '런던테리'가 아니라 '테리'라고 부른다고 한 바가 있다. 실제 런던테리의 구교 지역에는 '자유테리(Free Derry)'라는 표식이 있었다. 이와 같이 지명이라고 할 지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친구교 양측이 첨예하고 부딪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런던테리의 두 이름에 대해서는 <http://www.megastories.com/ireland/town.htm>를 참조.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민지시대 이래의 이분법적인 문화차이는 상대적 희석되고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⁵⁾

아일랜드의 상황과 남북한의 상황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두 체제(혹은 집단)가 갈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아일랜드의 문화적 갈등은 남북한 문화갈등에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 못지 않게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화적 갈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갈등이 식민지 지배로 비롯되었고, 갈등의 주체가 토착민과 이주민으로 뿌리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년 동안 같이 살아오는 동안 언어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문화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종교라는 요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계급적 요인과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독립과 반독립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화적 갈등이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정치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젊은세대가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등 상대적으로 문화적 갈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조장하는 벽

45) 유럽통합과정에서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황익주,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아일랜드 사회의 변화와 적응: 니나(Nenagh)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권2호 (1998 여름), pp. 81~103; “유럽통합의 진전과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변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9권3호 (2000 가을), pp. 123~142 참조.

화를 포함한 적대적인 문화구조에서 자라나면서 상대집단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립된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여전히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갈등의 해소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아일랜드 공화국 내에서 문화적 차이가 점차 희석되는 과정에서 유럽통합이나 경제성장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적 통합이 사회 구조전체의 변화과정에서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시키는 것보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문화통합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Ⅲ. 북한문화와 남북문화교류의 경향과 특성

1. 북한문화의 경향

최근 북한문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북한 문예상황의 의미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작품들과 비교해서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화 「민족과 운명」⁴⁶⁾이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대두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민족과 운명」은 규모의 방대함뿐만 아니라, 다루고 있는 소재나 주제도 과거 작품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초기 작품들의 경우는 최덕신, 최홍희 등 고위관료 출신 월북자, 반한적이었던 윤이상, 장기수 출신 이인모 등을 다루면서 배경이 주로 남한과 자본주의 사회이다. 과거 북한 영화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묘사한 작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주로 피폐함이나 정치적 억압 등 주로 남한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였다. 그러나 「민족과 운명」에서는 자본주의사회의 화려함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다. 물론 결론은 북한체제가 더욱 낫다는 것이지만, 유람선이 떠있는 서울이나 에펠탑과 몽마르뜨 언덕, 자유의 여신상과 화려한 일본의 밤거리 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시도였다. 또한 「그때 그사람」, 「낙화유수」, 「홍도야 우지마라」 등 남한의 대중가요가 영화의 삽입곡으로 쓰였다는 점도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호텔방에서 여성이 샤워

46) 1991년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은 2001년 현재 총 53부작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작될 전망이다. 각 편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특히 초기 작품들을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화려한 삶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성적인 차원에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족과 운명』이 제작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문화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주류문화 성향이 바뀌는 분위기에서 『민족과 운명』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평양축전이 북한 주민들과 문화종사자들에게 일종의 문화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보천보 경음악단』이 상징하듯이 서구와 유사한 문화들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상황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화적 양식들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형식이나 내용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체제선전이나 정당화라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과거의 이야기 구조나 형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었고, 이 결과 『민족과 운명』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북한체제가 처해있는 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고립화가 더욱 심화된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제한적인 교류가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의 접촉이 동구에서처럼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중국과 같이 체제의 전반적인 성격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지배층은 제한적인 개방을 위한 일정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표출된 것이 『민족과 운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체제의 보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문화를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예방주사 효과를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예창작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창작과정에서도 세밀한 정치적 효과를 계산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민족과 운명』도 뚜렷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되고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작된 『민족과 운명』 연작의 흐름을 보면 처음 생각한 정치적 계산이나 정책목표가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지배층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로동계급편』의 대두이다. 『로동계급편』은 『민족과 운명』의 25~33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전 작품의 흐름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로동계급편』의 무대는 북한이며 종자를 ‘식물 철학’으로 삼았다. 소재는 천리마운동이고 사회주의적 생산의 독려를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로동계급편』은 1960년대 이래의 전통적인 북한영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로동계급편』은 그 이전의 『민족과 운명』, 연작들과 차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규모도 제일 크고(10부작), 북한에서는 『민족과 운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⁴⁷⁾ 이와 같은 평가는 기존의 『민족과 운명』 연작이 문제가 있다고 북한 지배층이 판단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연작들과는 달리 북한을 중심으로 계급성을 강조하는 노동계급 편이 등장한 것은 지배층의 의도와는 달리 일반주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함에 경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⁴⁸⁾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다시 계급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로동계급편』의 등장은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

47) 북한에서는 로동계급편이 “『민족과 운명』의 총적인 구성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둥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리성덕, “로동계급의 생활철학을 구현한 세계적인 걸작 (1),” 『조선영화』, 267 (1995) p. 41.

48) 실제로 최근에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족과 운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으나, 주민들의 주된 관심은 배우들이 입고 있던 의상이나 화려한 장면 등이었다고 한다.

되어 있다. 『로동계급편』이 제작된 1995년은 김일성 사후로서 적극적인 체제방어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중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가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물인 『민족과 운명』의 제작방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 이후 정치적으로 강조되는 ‘고난의 행군 정신’이나 ‘붉은기’의 대두도 『로동계급편』의 제작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⁴⁹⁾

『민족과 운명』에서 『로동계급편』이 등장한 것이나 김일성 사후 발표된 소설 『뜨락또르 운전수 일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일성 사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이념을 중시하는 수령형상문학 시대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후 개혁적 성향의 작가와 보수적 성향의 작가 사이의 긴장이 극대화되어 보수화되는 문학예술계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작가는 숙청되었다.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높새바람』의 작가 홍석중은 보수화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청되었고, 『벗』의 작가 백남룡은 『향도의 총서』 중 『동해천리』를 집필하여 보수화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작품 창작 방향을 전환하였다. 『뜨락또르 운전수 일가』의 김명익도 1980년대 개혁적 성향을 띠었던 작가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 문예정책은 계급성이나 이념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수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과거 형태의 문학예술로 회귀하거나, 현재의 분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학예술분야의 이념화 및 보수화를 상징하고 있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도 북한에서는 과거

49) 로동계급편의 등장은 『조선영화』에 붉은기에 대한 논문이 게재된 시점과도 맞물린다. 김정옥, “사회주의붉은기는 언제나 하늘 높이 휘날리리,” 『조선영화』 266 (1995); 김성남, “우리의 붉은기,” 『조선영화』 268 (1995); 『조선영화』 사설, (1996).

이념적 성향 작품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⁵⁰⁾, 영화의 내용을 엄밀히 살펴보면 과거의 유사 작품들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로동계급편』에서는 비록 노동계급이 작품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노동계급 출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이나, 공장이나 작업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 가족 문제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은 1980년대 이후 숨은 영웅 형상문학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재나 주제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로동계급편』이 과거의 작품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령형상화 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의 방식으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재강조된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이 일반주민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북고주의적인 문학예술이 주민들에게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문학예술이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며 문학예술 부문도 직접 관할하고 있는 김정일 자신이 다양한 문학예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북한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휘파람에 대한 아래의 논의를 보면 김정일이 생활적인 문학예술과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 신기명, “로동계급주제영화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 『조선영화』 265 (1995), p. 34.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송에서 또 편향을 범하는 것 같아 노래 「휘파람」만 내보내지 말고 혁명가요도 내보내라고 하였다 하시면서 요즘 정세로 보아 사람들에게 「휘파람」과 같은 생활적인 노래만 부르게 할 수도 없다고 가르치시었다 … 또한 혁명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을 옹기결합할 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사상을 적극 구현해 나감으로써 음악보급사업에서는 혁명적인 것과 생활적인 노래들이 적절하게 배합함으로써 누구나 다감하고 풍부한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도덕적 풍모를 훌륭히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⁵¹⁾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대의 문화적 상황을 생각할 때, 앞으로 북한 문화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서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혁명성을 강조하는 수령형상문학이나 항일혁명문학은 꾸준히 강조될 것이나 그 내용이나 형식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양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문학예술 분야도 김정일이 명실상부하게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들이 나타날 수 있다. 「민족과 운명」의 「카프편」 제작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던 이광수나 카프를 재평가한 것은 1980년대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⁵²⁾ 따라서

51) 장정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 업적 11: 군중문학 예술의 찬란한 개화」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p. 200.

52) 조선문학사에서 이광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86년이고, 1992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를 통하여 이광수의 복권이 공식화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 초 김일성 대학에 유학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1980년 제3차 작가동맹회의 이후 문학가들을 중심으로 이광수의 복권문제가 논의되었고 이를 김정일이 승인하였다고 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국가 문화사업에서 카프를 내세운 것은 북한 문화사에서 김정일 시대를 공표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셋째, 공식적으로 김정일이 수령의 지위를 계승하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김정일을 대상으로 하는 수령형상문학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불멸의 향도』 연작과 별도로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수령형상화 문학이 창작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넷째,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예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보천보경음악단』이나 『왕재산경음악단』과 견줄 수 있는 공연단체를 장르별로 신설하거나 ‘휘파람’유의 음악창작을 독려하거나, 세련된 형식의 영화 창작이 추진될 수 있다. 김정일과 북한의 지도층이 부분적인 수준에서라도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면 새로운 양식의 문학예술창작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다섯째, 문학예술 작품의 성격변화와 관계없이 창작자인 작가들에 대한 사상적, 조직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인텔리인 동시에 예술가인 작가들은 사회의 변혁기에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학예술 분야에 개방이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작가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전체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여섯째, 김정일이 문학예술에서 혁명성과 생활성, 수령형상문학과 숨은 영웅 형상문학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예정책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은 점차 혁명적인 작품들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김정일은 기존의 혁명적인 문학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지만 문화적 취향이 변한 주민들은 공식문화를 소외시키고, 비공식적인 문화를 창작하고 유통시킬 여지도 없지 않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변화하는 북한의 문화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적 개방의 폭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 문화에 대한 태도도 과거와는 다른데 특히 올 태양절을 맞이하여 개최된 ‘4월의 축전’에 참가한 남한 대중 가수 김연자 공연을 조선중앙 TV를 통하여 녹화 방영하고, 각종 매체에서 극찬을 한 것은 기존의 폐쇄적인 문화정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또한 지난 6월에 조선중앙 TV를 통하여 방영된 러시아 영화 「러시아식 사랑」의 방영은 국가사회주의 몰락이후 동구 영화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사안이지만, 영화의 선정성 등이 과거 북한 문학예술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는 점에서도 북한 문학예술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모스크바 영화제의 참여도 최근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평양에서 개최되는 「평양영화축전」을 제외하고 지난 10여년간 국제 영화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 영화가 다시 국제 무대에 나선 것이다.

2000년에 제작된 영화 「살아있는 령혼들」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해방 직후 일본에 갔던 징용자들의 귀국선 ‘우우키시마마루호’의 침몰사건은 다른 이 영화는 컴퓨터그래픽을 사용하는 등 서구적 기법을 광범위하게 차용하고 있으며, 장면의 전개 등이 허리우드 대작 「타이타닉」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또한 반일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북한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이 소재가

53) 김연자 공연은 녹화중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설하는 특집방송이 편성되었고, 기타 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영미, “김연자 공연이 말해주는 것: 2001년 상반기 대중적 공연물 교류의 허와 실,” 문화정책개발원 주최 「2001 통일문화정책 제6차 포럼」 (2001. 7) 발표 논문 참조.

아니라는 점도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서 가장 중시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등 대표적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총련 출신인 김춘송이 연출을 하였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2. 정상회담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특성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산가족의 상봉이 15년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극적인 상봉은 그 자체가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철도 도로, 개성공단 등 경협 분위기도 점차 고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공연을 하였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8·15를 기념하는 음악회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참여하여 단독공연과 KBS교향악단과의 합동공연을 남한주민들에게 선사하였다. 또한 남한의 언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KBS는 백두산 현지에 추석을 맞이하여 생방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삼성의 탁구단은 평양에서 시합을 하였고, 시합장면은 생중계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면서 올림픽에 공동입장을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남한 언론사의 현지 취재 및 제작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에 KBS가 조선중앙방송의 협조를 얻어 제작하

54) 최척호, “남북영화교류와 북한 영화계 현황,” 『2001 통일문화정책 6차 포럼』, pp. 59~66.

여 생방한 추석특집 프로그램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정규방송으로 편성되었던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일종의 공동제작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과거와 비교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을 방문하는 문화교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교적 남북한 교류가 활발하였던 1990년대 초나 김대중정권 수립이후에도 문화교류의 장소는 제3국이나 북한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수년동안의 문화교류는 남한측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공연한 것이 중심이었다. 북쪽 사람들이 남한을 방문하여 공연을 한 것은 1985년도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할 당시 동반하였던 예술단 공연 이래로 한번도 없었다. 이것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였지만 남한 문화가 북한인민들에게 보여지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 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⁵⁾ 이와 같은 형식 변화는 그 자체로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보면 문화교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북한문화의 남한 수용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가 문화교류에 직접 간여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외면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진 소년예술단과 교향악단의 방한에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도 정부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⁶⁾

55) 물론 방송이나 책자 등을 통하여 북한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직접 공연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공연은 사회적 관심사가 높았고, TV에 중계되는 등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다.

56) 교향악단의 경우 KBS가 초청대상자였으나, 이미 한 민간단체가 4월에 북측과 방문공연에 계약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분쟁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는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방안을 모색중이다.

셋째, 자본의 결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평양교예단이나 평양교향악단의 공연에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정상회담 지난해의 평양공연 등의 행사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사례비가 필요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나 이번 문화교류의 경우는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넷째, 제3국이 아닌 남북한 현지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과거 문화교류의 중심은 남북한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제3국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남한(소년예술단·평양교예단·평양교향악단)과 북한(탁구시합·백두산 현지 방송)에서 이루어졌다. 어느 곳에서 교류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만은 아니다. 제3국의 문화교류는 참여자에 국한된 교류지만, 현지에서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비록 충분한 인원은 아니지만 남북의 문화를 상대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류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방송과 언론이 결합되는 등 문화교류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결합은 근본적으로 문화교류의 경험을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연이나 행사를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신문과 방송의 보도 혹은 중계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이 간접적이거나 문화교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문 방송과 같은 언론의 교류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문화교류의 성과를 확대시켰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문화교류의 다양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소년예술단, 교예단, 교향악단, 방송 그리고 체육에 이르기까지 정상회담을 전후

한 각종 문화교류는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교류의 중심지가 남한이 됨으로써 과거에는 접하지 못하였던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교류가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교류가 폭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문화교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정치에의 예측성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최근 이루어진 문화교류는 정상회담의 개최와 합의문 도출이라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은 바 크다. 즉, 논리적으로 본다면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었다는 점이다. 문화교류가 남북관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남북관계가 현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비롯된 만큼 문화교류에서도 정부의 몫이 확대되어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 단계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남북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의 자발성을 강조한다면 남북문화교류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국가가 개입하는 문화교류는 결과적으로 문화교류를 정치적 홍보로 이용함으로써 문화교류의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문화교류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문화교류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교류에서

상품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연료나 공연료 등의 사례는 어느 공연에나 필요한 지출이 될 것이나, 적절한 가격과 동떨어져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인데 그 하나는 문화교류마저 대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앞으로 문화교류에서도 시장 원리가 적용되어 상품성있는 문화만이 교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분단 상황으로 상대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이 경험한 분단은 단순히 둘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남북한 사람의 만남이 곧 위범이었고, 당연히 상대문화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보안법위반이었고, 이는 반국가사범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⁵⁷⁾ 이와 같이 상대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커녕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문화적 적개심을 유지한 채로 갑자기 상대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호기심 충족에 수준에 머무르거나, 과거의 문화적 편견을 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평양 교예단의 공연을 보면서 북한 독재체제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⁵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거리감 → 인간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가 있다.

57) 북한의 경우는 다소 다르다. 남북한문화의 본질적인 차이 즉 남한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남한 문화 가운데 일부는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황석영의 작품이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주로 민중문학 계열의 작품들은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었다.

58) ‘교예단원이 실수하면 탄광에 끌려가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거나 소년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가혹하게 훈련시킨 결과’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정상회담 자체가 남한 문화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 증대로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TV를 통하여 방영되었고, 이 가운데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북한의 거리, 그리고 북한의 자연들을 보여주는 것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언어에서 건축물 그리고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이해의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이 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북한문화가 남한문화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북한문화가 남한문화와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하나의 문화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최근 반세기동안 서로 다른 문화구조를 만들어왔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급작스럽게 접하게된 북한문화의 이해방식이 상호 모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금기시 되었던 북한문화를 접하게 되었다는 것은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차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사회주의 문화 특히 북한문화는 이해나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과 타도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북한영화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기보다는 북한영화의 문제점을 먼저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다양성이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몫을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정상회담 자체 그리고 이후의 문화교류는 남한 문화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접촉이 반복됨에 따라 북한문화에 점차 익숙해진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화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의 총체라는 차

원에서 북한문화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북한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익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갖고 있었던 북한사람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점차 풀어질 수 있다.⁵⁹⁾ 그리고 이러한 인식변환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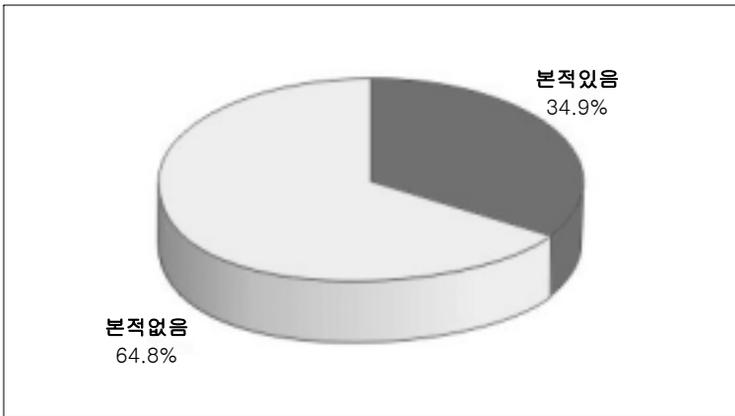
59) 북한사람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당대비평』 12 (2000 가을) 참조.

IV. 북한문화 수용실태

1. 북한문화 경험실태

북한문화의 수용실태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이번 조사에서 경험한 작품이외에 장르에 상관없이 북한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북한문화 경험 여부



전체적으로 북한문화를 경험한 경험은 34.9%로 본적이 없다는 사람 64.8%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단별로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표 2> 참조). 그러나 북한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비율은 어린이들의 경우는 더욱 높아서 조사대상자 전체의 81.5%가 조사 시점 이전에 북한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대답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2> 집단별 북한문화 경험 여부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본적있음	인원수	30	13	87	130
	집단내 비율	33.7%	31.7%	36.0%	34.9%
	전체의 비율	8.1%	3.5%	23.4%	34.9%
본적없음	인원수	59	28	154	241
	집단내 비율	66.3%	68.3%	63.6%	64.8%
	전체의 비율	15.9%	7.5%	41.4%	64.8%
무응답	인원수			1	1
	집단내 비율			.4%	.3%
	전체의 비율			.3%	.3%
전체	인원수	89	41	242	372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23.9%	11.0%	65.1%	100.0%

<표 3> 초등학생 북한문화 경험여부

	인원수	비율
있 다	30	15.4
없 다	159	81.5
무응답	6	3.1
전 체	195	100.0

반면에 미술전람회를 찾은 관객의 경우는 이전에 북한문화를 경험
이 있는 경우가 미세하지만 처음 경험한 사람들보다 많다(<표 4> 참
조). 이러한 차이는 다른 조사 대상자와 미술전람회 관람객의 근본적
인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결정에 의하여 북한문화를 경험하고 조사대상이 된 것이 아니
지만, 미술전람회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북한문화를
접촉하려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문화에 관심이
높았던 사람들로 볼 수 있으며, 당연히 이전에도 북한문화를 적극적
으로 경험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북한미술 관람객의 북한문화 경험 여부

	인원수	비율
있 다	51	50.5
없 다	50	49.5
Total	101	100.0

북한문화를 직접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북한문화를 교과과정에서 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과과정에서의 북한문화 수강여부를 물어보았고 그 결과가 다음의 <표 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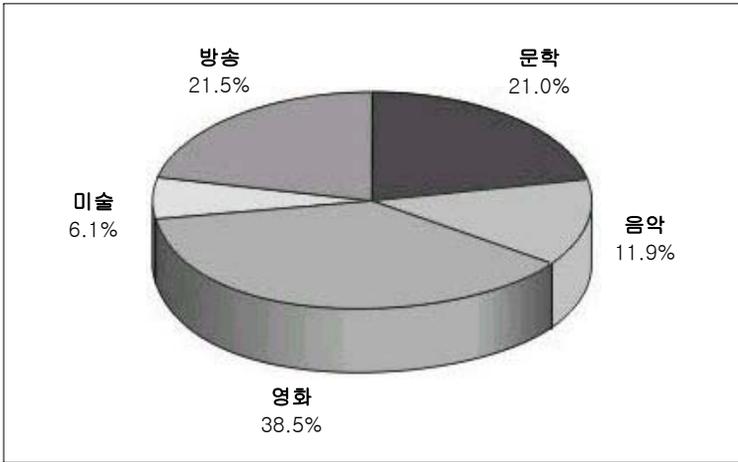
<표 5> 집단별 북한관련 과목 수강여부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없다	인원수	60	29	74	163
	집단내 비율	67.4%	78.4%	30.3%	44.1%
	전체의 비율	16.2%	7.8%	20.0%	44.1%
한과목	인원수	26	5	145	176
	집단내 비율	29.2%	13.5%	59.4%	47.6%
	전체의 비율	7.0%	1.4%	39.2%	47.6%
두과목	인원수	3	1	3	7
	집단내 비율	3.4%	2.7%	1.2%	1.9%
	전체의 비율	.8%	.3%	.8%	1.9%
세과목이상	인원수		2	22	24
	집단내 비율		5.4%	9.0%	6.5%
	전체의 비율		.5%	5.9%	6.5%
전체	인원수	89	37	244	370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24.1%	10.0%	65.9%	100.0%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67.4%)이나 교사(78.4%)의 과반수 이상이 교과과정에서 북한 관련 교과목을 들은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대학생들이 북한문화 접촉의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의 경우는 조사 당시 북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북한관련 교과의 수강경험이 적은 것은 고등학생들이 교과목 편성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재 교육체제에서 북한을 다루는 강의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는 조사대상이 통일교육원에 연수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 연수를 받는 교사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는 교과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북한관련 교과를 수강한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북한관련 교과목 수강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69.7%), 북한문화를 경험해보았다는 비율이 36.0%에 불과하다는 것은 북한관련 교과목에서도 북한문화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관련 교과목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북한문화의 경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북한문화를 배워본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장르별 응답이 다음의 <그림 2>이다.

<그림 2> 장르별 북한문화 배운 경험 여부



장르별 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영화(38.5%)를 교육받은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고, 문학(21.0%), 그리고 방송(21.5%) 교육 경험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술(6.1%)이나 음악(11.9%) 교육 경험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장르의 경우도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북한문화를 접촉한 경우도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별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북한문화를 배운 경험이 많고, 교사들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교사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대에 북한문화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르별로 보면 고등 학생들은 특히 북한 문학이나 영화

<표 6> 집단별 북한문화를 배운 경험 여부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문 학	인원수	43	2	34	79
	비 율	47.8%	4.9%	13.8%	21.0%
음 악	인원수	16	5	24	45
	비 율	17.8%	12.2%	9.8%	11.9%
영 화	인원수	41	3	101	145
	비 율	45.6%	7.3%	41.1%	38.5%
미 술	인원수	1		22	23
	비 율	1.1%		8.9%	6.1%
방 송	인원수	13	3	65	81
	비 율	14.4%	7.3%	26.4%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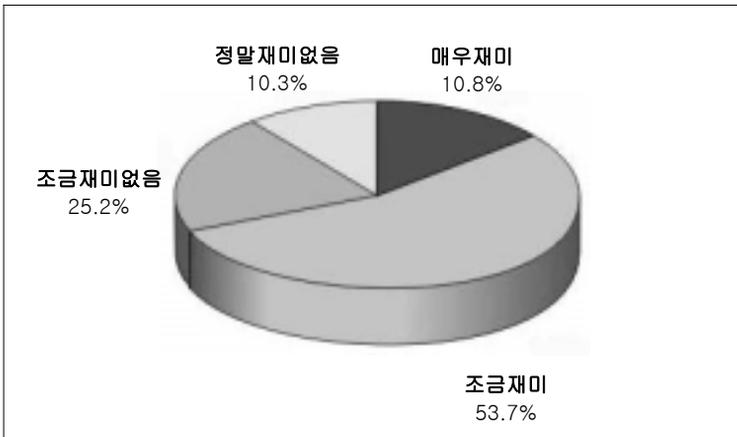
* 인원수는 집단별로 경험이 있는 조사자의 숫자이며, 비율을 대상집단 내에서 해당 장르의 교육 경험이 있는 비율이다.

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대학생들은 영화와 방송관련 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차이는 담당교사(혹은 교수)의 선호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통일교육의 개혁과정에서 멀티미디어 활용 등 교육방안의 다양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북한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최근 영상매체 쪽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2. 북한문화의 호감도

북한문화의 수용 실태의 하나로서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에게 북한 영화를 감상한 이후 북한 영화가 재미있었는가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의 <그림 3>에 정리되어 있다. 영화를 본 이후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가를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이 10.8%, 조금 재미있다가 53.7%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반면 재미없었다는 사람은 전체의 35.5%이었다. 전반적으로 재미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조사 대상들이 관람한 영화들은 북한의 영화 가운데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적은 영화들로서 일반적으로 남한 주민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적은 영화였다는 점에서 북한문화의 호응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림 3> 북한영화 호감도



집단별로 보면 북한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 고등학생들 가운데 북한영화를 재미있다고 본 비율은 42.2%로 교사(72.5%)나 대학생(67.8%)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집단이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집단별 북한영화 호감도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매우재미	숫자	11	6	23	40
	집단내 비율	12.2%	15.0%	9.6%	10.8%
	전체 비율	3.0%	1.6%	6.2%	10.8%
조금재미	숫자	36	23	139	198
	집단내 비율	40.0%	57.5%	58.2%	53.7%
	전체 비율	9.8%	6.2%	37.7%	53.7%
조금 재미없음	숫자	25	10	58	93
	집단내 비율	27.8%	25.0%	24.3%	25.2%
	전체 비율	6.8%	2.7%	15.7%	25.2%
정말 재미없음	숫자	18	1	19	38
	집단내 비율	20.0%	2.5%	7.9%	10.3%
	전체 비율	4.9%	.3%	5.1%	10.3%
전 체	숫자	90	40	239	369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 비율	24.4%	10.8%	64.8%	100.0%

한편 만화영화를 보았던 초등학생의 경우는 81%라는 절대 다수가 조금 재미있었거나 매우 재미있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를 본 고등학생 이상의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집단에서도 나이가 어린 학생이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호감도가 높은 것은 이들이 경험한 것이 만화영화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본 북한영화는 모두 정치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며, 내용이나 전개상으로 남한 만화영화와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 8> 초등학생의 만화영화 호감도

	인원수	비율
매우재미	79	40.5%
조금재미	79	40.5%
조금 재미없음	23	11.8%
정말 재미없음	10	5.1%
무응답	4	2.1%
전체	195	100.0%

북한미술에 호감도는 앞의 경우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표 9> 참조). 좋았다는 응답비율이 94%로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미술작품의 경우 미술전람회에 자의로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 전람회에 올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문화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 대부분이 정치적 메시지가 거의 없는 작품들이라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조사 대상들이 관람한 전람회는 조선화를 바탕으로 한 전시회로서 기본적으로 남한의 한국화와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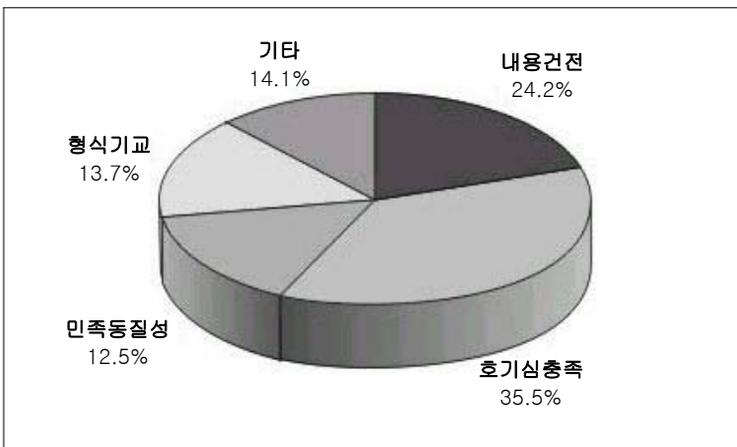
차이가 없는 작품이 선정되었다.

<표 9> 북한미술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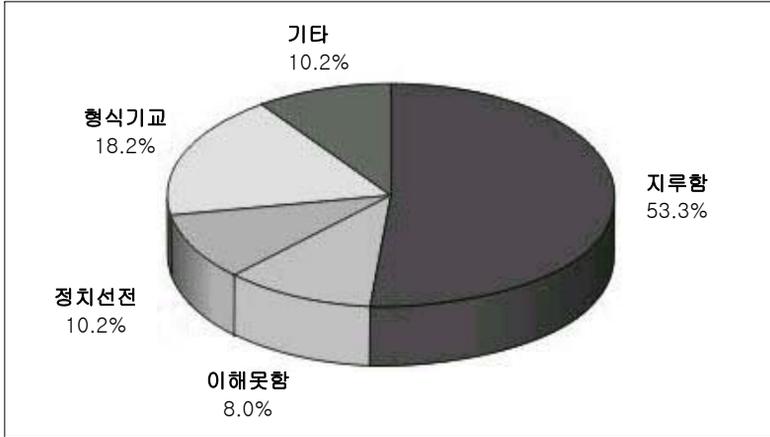
	인원수	비율
매우 좋았다	58	57.4%
조금 좋았다	37	36.6%
별로 안좋았다	6	6.0%
매우 안좋았다	0	0
전체	101	100.0%

영화 감상자 중 재미있다는 응답자와 재미없었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4>과 <그림 5>이다.

<그림 4> 북한영화 재미있는 이유



<그림 5> 북한영화 재미없는 이유



재미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는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내용이 건전하다(45.2%)와 북한에 대한 호기심 충족(30.6%)이 제일 높았고, 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호기심 충족(41.5%)이 제일 높았던 반면, 교사들은 민족적 동질성 확인(66.7%)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표 10>, <표 11> 참조).

재미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고등학생(61.6%)과 대학생(51.9%)이 지루하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교사들은 정치선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50.0%). 교사들이 관람한 영화 『살아있는 령혼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성은 강하지만 북한체제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지 않은 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남한 내 개봉을 고려할 정도로 이념적 색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있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선전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집단별 북한영화 재미있는 이유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내용이 건전	인원수	28	3	31	62
	집단내 비율	45.2%	10.0%	18.9%	24.2%
	전체의 비율	10.9%	1.2%	12.1%	24.2%
북한에 대한 호기심 충족	인원수	19	4	68	91
	집단내 비율	30.6%	13.3%	41.5%	35.5%
	전체의 비율	7.4%	1.6%	26.6%	35.5%
민족적 동질성	인원수	4	20	8	32
	집단내 비율	6.5%	66.7%	4.9%	12.5%
	전체의 비율	1.6%	7.8%	3.1%	12.5%
형식기교 충족	인원수	5		30	35
	집단내 비율	8.1%		18.3%	13.7%
	전체의 비율	2.0%		11.7%	13.7%
기 타	인원수	6	3	27	36
	집단내 비율	9.7%	10.0%	16.5%	14.1%
	전체의 비율	2.3%	1.2%	10.5%	14.1%
전 체	인원수	62	30	164	256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24.2%	11.7%	64.1%	100.0%

<표 11> 집단별 북한영화 재미없는 이유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지루하다	인원수	27	5	41	73
	집단내 비율	61.4%	35.7%	51.9%	53.3%
	전체의 비율	19.7%	3.6%	29.9%	53.3%
내용이해 곤란	인원수	6		5	11
	집단내 비율	13.6%		6.3%	8.0%
	전체의 비율	4.4%		3.6%	8.0%
정치선전 많음	인원수	3	7	4	14
	집단내 비율	6.8%	50.0%	5.1%	10.2%
	전체의 비율	2.2%	5.1%	2.9%	10.2%
형식기교 불충족	인원수	5	1	19	25
	집단내 비율	11.4%	7.1%	24.1%	18.2%
	전체의 비율	3.6%	.7%	13.9%	18.2%
기타	인원수	3	1	10	14
	집단내 비율	6.8%	7.1%	12.7%	10.2%
	전체의 비율	2.2%	.7%	7.3%	10.2%
전체	인원수	44	14	79	137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32.1%	10.2%	57.7%	100.0%

호감도와 상관없이 북한영화를 본 이후 가장 인상깊었던 점을 물어본 질문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표 12참조>),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은 말투와 언어 등에 주목하였고, 생활상이나 사회상 그리고 자연환경을 인상깊게 보았으나 교사들은 정치적 선전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북한영화에서 인상적인 것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말투·언어	인원수	31	1	23	55
	집단내 비율	48.4%	4.5%	20.5%	27.8%
	전체의 비율	15.7%	.5%	11.6%	27.8%
행 동	인원수	5		6	11
	집단내 비율	7.8%		5.4%	5.6%
	전체의 비율	2.5%		3.0%	5.6%
생활상·사회상·자연상	인원수	12	1	13	26
	집단내 비율	18.8%	4.5%	11.6%	13.1%
	전체의 비율	6.1%	.5%	6.6%	13.1%
순수·건전	인원수	7	4	8	19
	집단내 비율	10.9%	18.2%	7.1%	9.6%
	전체의 비율	3.5%	2.0%	4.0%	9.6%
긍정적 평가	인원수	4	2	3	9
	집단내 비율	6.3%	9.1%	2.7%	4.5%
	전체의 비율	2.0%	1.0%	1.5%	4.5%
유치·비판	인원수	5	2	14	21
	집단내 비율	7.8%	9.1%	12.5%	10.6%
	전체의 비율	2.5%	1.0%	7.1%	10.6%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정치선전	인원수		7	30	37
	집단내 비율		31.8%	26.8%	18.7%
	전체의 비율		3.5%	15.2%	18.7%
민족적 동질성	인원수		5	5	10
	집단내 비율		22.7%	4.5%	5.1%
	전체의 비율		2.5%	2.5%	5.1%
표현방법 차이	인원수			10	10
	집단내 비율			8.9%	5.1%
	전체의 비율			5.1%	5.1%
전 체	인원수	64	22	112	198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32.3%	11.1%	56.6%	100.0%

미술관람자들은 북한의 미술 작품들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표 13> 참조). 민족적 동질성을 느꼈다는 응답자가 35.8%로 제일 많으나 형식과 기교가 마음에 들었다(25.3%), 북한에 대한 호기심 충족(22.1%) 등이 엇비슷하였으며, 내용이 건전하다는 응답의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13.7%).

<표 13> 북한미술 관람자의 긍정평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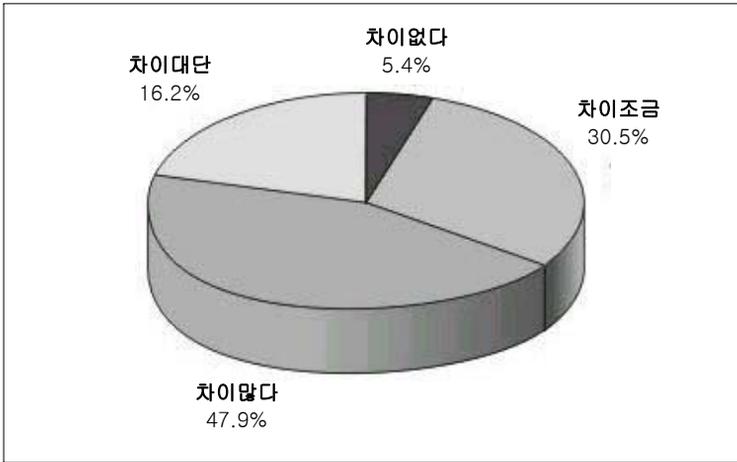
	인원수	비율
내용이 건전하다	13	13.7%
북한에 대한 호기심 충족	21	22.1%
민족적 동질성	34	35.8%
형식기교가 마음에 들었음	24	25.3%
기 타	3	3.2%
전 체	101	100.0%

3. 북한문화와 문화적 이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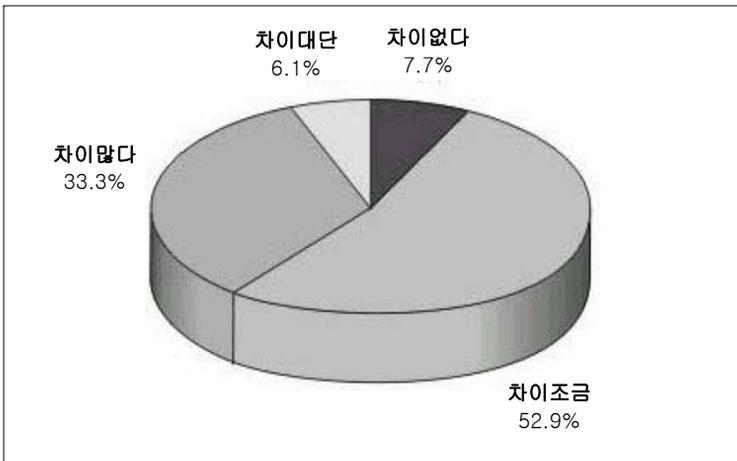
북한문화를 감상하면서 남한문화와 어느 정도 차이를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보면서 남북한 문화가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보면서 남북한 언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그림 6>와 <그림 7>에 정리되어 있다.

문화이질화 정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4%, 차이가 조금있다가 30.5%인 반면 차이가 많다는 응답이 47.9%, 차이가 대단하다는 응답이 16.2%로 다수의 조사 대상자들이 차이가 많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이질화의 정도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표 14> 참조).

<그림 6> 문화이질화 평가



<그림 7> 언어 이질화 평가



<표 14> 집단별 문화이질화 평가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차 이 거의없다	인원수	9	4	1	14
	집단내 비율	10.0%	10.0%	.8%	5.4%
	전체의 비율	3.5%	1.5%	.4%	5.4%
차 이 조금있다	인원수	28	12	39	79
	집단내 비율	31.1%	30.0%	30.2%	30.5%
	전체의 비율	10.8%	4.6%	15.1%	30.5%
차이가 많다	인원수	41	17	66	124
	집단내 비율	45.6%	42.5%	51.2%	47.9%
	전체의 비율	15.8%	6.6%	25.5%	47.9%
차이가 대단하다	인원수	12	7	23	42
	집단내 비율	13.3%	17.5%	17.8%	16.2%
	전체의 비율	4.6%	2.7%	8.9%	16.2%
전 체	인원수	90	40	129	259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34.7%	15.4%	49.8%	100.0%

언어 이질화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가 7.7% 차이가 조금있다가 52.9%이고,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응답이 33.3%, 차이가 대단히 많다가 6.1%로 문화적 이질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이질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응답비율이 70%를 넘는 반면 젊은세대들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응답비율은 각각 61.1%와 56.9%로 상대적으로 젊은세대들이 언어 차이를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5> 참조).

<표 15> 집단별 언어 이질화 평가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차 이 거의없다	인원수	3	8	9	20
	집단내 비율	3.3%	19.5%	6.9%	7.7%
	전체의 비율	1.1%	3.1%	3.4%	7.7%
차 이 조금있다	인원수	52	21	65	138
	집단내 비율	57.8%	51.2%	50.0%	52.9%
	전체의 비율	19.9%	8.0%	24.9%	52.9%
차 이 많이있다	인원수	26	10	51	87
	집단내 비율	28.9%	24.4%	39.2%	33.3%
	전체의 비율	10.0%	3.8%	19.5%	33.3%
차 이 대단히 많다	인원수	9	2	5	16
	집단내 비율	10.0%	4.9%	3.8%	6.1%
	전체의 비율	3.4%	.8%	1.9%	6.1%
전 체	인원수	90	41	130	261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34.5%	15.7%	49.8%	100.0%

언어에 대한 이질감 보다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은 문화가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이질화의 경우 색깔과 같은 시각적 요소, 음악 그리고 감상한 작품의 전개방식, 속도감 등이 평가의 척도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언어라는 하나의 요소에 의존하는 평가에 비하여 이질화의 정도를 더욱 크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질화에 대한 평가는 미술작품관람객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 16>, <표 17>참조).

<표 16> 문화이질화 평가(미술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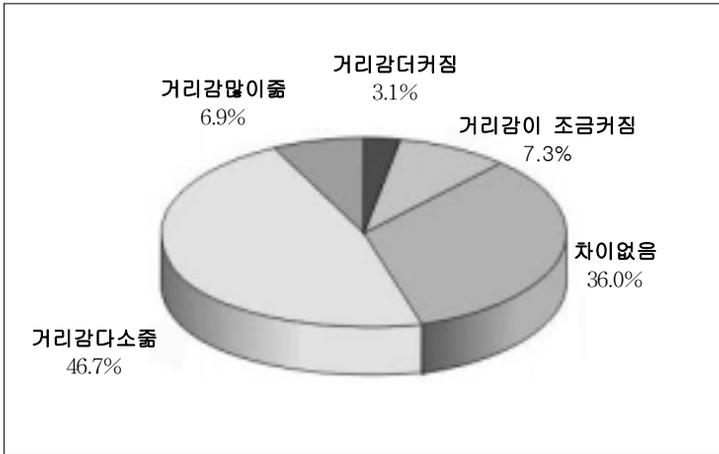
	인원수	비율
차이가 거의없다	15	14.9%
차이가 조금있다	48	47.5%
차이가 많이있다	29	28.7%
차이가 대단히 많다	8	7.9%
무응답	1	1%
전체	101	100.0%

<표 17> 미술이질화 평가

	인원수	비율
차이가 거의없다	19	18.8%
차이가 조금있다	49	48.5%
차이가 많이있다	25	24.8%
차이가 대단히 많다	8	7.9%
전 체	101	100.0%

북한문화의 접촉이 실제로 문화적 이질화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을 보고 나서 북한에 대한 거리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8> 참조). 조사 대상자 중 46.7%가 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36.0%가 차이가 없었다고 대답하였고, 다음으로는 거리감이 조금 커진다는 응답이 7.3%,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6.9%, 거리감이 더 커진다는 응답이 3.1% 순 이었다. 과반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북한문화 감상이 남북한간 문화적 거리감 해소에 다소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으며, 오히려 거리감이 커졌다는 응답도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문화교류가 남북한 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 북한문화 감상 후 격차해소



북한문화 감상 후 격차해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집단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표 18> 참조).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사들이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응답 비율(조금 줄었다 23.7%, 많이 줄었다 7.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는 과반수 정도만이 문화감상이 격차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18> 집단별 북한문화 감상 후 격차해소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거리감 더 커짐	인원수	4	2	2	8
	집단내 비율	4.4%	4.9%	1.5%	3.1%
	전체의 비율	1.5%	.8%	.8%	3.1%
거리감 조금 커짐	인원수	3	4	12	19
	집단내 비율	3.3%	9.8%	9.2%	7.3%
	전체의 비율	1.1%	1.5%	4.6%	7.3%
차이없음	인원수	35	10	49	94
	집단내 비율	38.9%	24.4%	37.7%	36.0%
	전체의 비율	13.4%	3.8%	18.8%	36.0%
거리감 조금 줄어듦	인원수	43	22	57	122
	집단내 비율	47.8%	53.7%	43.8%	46.7%
	전체의 비율	16.5%	8.4%	21.8%	46.7%
거리감 많이 줄어듦	인원수	5	3	10	18
	집단내 비율	5.6%	7.3%	7.7%	6.9%
	전체의 비율	1.9%	1.1%	3.8%	6.9%
전 체	인원수	90	41	130	261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34.5%	15.7%	49.8%	100.0%

미술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는 <표 19>에 나타나 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의 경우는 거리감이 줄었다는 응답이 55.5%이고 거리감이 커졌다는 응답이 5%로 영화를 본 집단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리감이 많이 줄었다는 응답이 23.8%는 영화를 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술작품이 격차해소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9> 북한미술 관람 후 격차해소

	인원수	비율
거리감이 더 커졌다	1	1.0
거리감이 조금 커졌다	4	4.0
차이없다	38	37.6
거리감이 조금 줄었다	32	31.7
거리감이 많이 줄었다	24	23.8
무응답	2	2.0
전체	101	100.0

4. 북한문화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북한문화의 수용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문화에 대한 호감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호감도와 관련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교차분석하여 보았다. 교차분석에서 변수간 차이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Chi-Square 값이 0.05이하여야 한다. 이에 부합하여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 가지가 추출되었다. 첫 번째 것은 문화이질화에 대한 평가(<표 20> 참조)와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나라인가’라는 말에 대한 평가였다(<표 21> 참조).

감상한 작품의 호감도와 문화이질화에 대한 평가의 관계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감상한 작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반면 차이가 많다고 본 사람들은 감상한 작품을 상대적으로 재미없게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이질화에 대한 의식이 북한문화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적 이질화가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를 수용하는데 거부감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0> 북한문화 호감도와 문화이질화 평가

		문화이질				전체
		차이거의 없다	차이조금 있다	차이가 많다	차이가 대단하다	
매우재미	인원수	4	6	13	5	28
	집단내비율	28.6%	7.6%	10.5%	11.9%	10.8%
	전체의 비율	1.5%	2.3%	5.0%	1.9%	10.8%
조금 재미있음	인원수	7	45	50	20	122
	집단내비율	50.0%	57.0%	40.3%	47.6%	47.1%
	전체의 비율	2.7%	17.4%	19.3%	7.7%	47.1%
조금 재미없음	인원수	2	24	42	7	75
	집단내비율	14.3%	30.4%	33.9%	16.7%	29.0%
	전체의 비율	.8%	9.3%	16.2%	2.7%	29.0%
정말 재미없음	인원수	1	4	19	10	34
	집단내비율	7.1%	5.1%	15.3%	23.8%	13.1%
	전체의 비율	.4%	1.5%	7.3%	3.9%	13.1%
전체	인원수	14	79	124	42	259
	집단내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5.4%	30.5%	47.9%	16.2%	100.0%
Person Chi-Square 0.015						

남북은 하나라는 말에 대한 평가와 북한문화에 대한 호감도의 관계는 남북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한 평가가 좋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북은 하나라는 말에 동의하

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1> 북한문화 호감도와 ‘남북은 하나’에 대한 평가

		남북은 하나				전체
		정말 맞는다	조금 맞는다	조금 틀리다	정말 틀리다	
매우재미	인원수	21	12	4	3	40
	집단내비율	18.9%	7.2%	5.7%	15.8%	10.9%
	전체의 비율	5.7%	3.3%	1.1%	.8%	10.9%
조금재미	인원수	56	97	37	7	197
	집단내비율	50.5%	58.4%	52.9%	36.8%	53.8%
	전체의 비율	15.3%	26.5%	10.1%	1.9%	53.8%
조금 재미없음	인원수	26	43	18	4	91
	집단내비율	23.4%	25.9%	25.7%	21.1%	24.9%
	전체의 비율	7.1%	11.7%	4.9%	1.1%	24.9%
정말 재미없음	인원수	8	14	11	5	38
	집단내비율	7.2%	8.4%	15.7%	26.3%	10.4%
	전체의 비율	2.2%	3.8%	3.0%	1.4%	10.4%
전체	인원수	111	166	70	19	366
	집단내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30.3%	45.4%	19.1%	5.2%	100.0%
Person Chi-Square 0.012						

5. 면접 및 내용분석에서 나타난 북한문화의 수용 실태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방법론상의 한계로 현재 북한문화의 수용 실태를 정확히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완의 차원에서 면접 및 내용분석을 통하여 북한문화의 수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검토한 것은 2001년 6월 10일 KBS 일요 스페셜 “남북 공동선언 1주년기획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편에 대한 시청자 감상문이다.⁶⁰⁾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에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노래와 남북에서 함께 불리 우는 노래를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사람같은 혼네와 다떼마애를 가진 듯 합니다. 격양된 목소리, 운을 타는 듯한 말 한마디들이 다들 걸모습이 아닐까... 철저히 꾸며진...식량난에 굶어죽는 외곽 사람들도 있는 반면, 저렇게 흥에 겨워 노래부르는 사람도 있다니.... 북한은 일본만큼이나 이상한 나라 같아여.. 정말 북한의 고등학생들이 민요나 저런 구식의 노래에 맞춰 할머니들 어깨춤 같은 춤을 추는 걸까....싫군요.. 요즘 우리 나라 어린이들 같은 생기발랄함이나 자기만의 개성 이런건 전혀 보이질 않고, 철저히 남북이 갈라졌던 그 시대 그대로의 상황에 머물러 있을 뿐이군요. 북한은 여전히 그런 유아상태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노래의 생명력을 운운하셨는데.....그만큼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는 건지....믿기 힘든 장면들이었습니다 (애청자: hangha@kornet.net)

북한을 알리는 수 없이 많은 프로들을 접하면서, 피부와 와 닿는 느낌은 사실상 '이질감'이었습니다. '통일'이란 막막한 기대

60) <http://www.kbs.co.kr/special/review/review.htm>; <http://www.kbs.co.kr/special/bbs/bbs.htm> 참조.

와, 가까워 저야 한다는 숙제 앞에서 공유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 프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찾은 것 같네요...또한 이 프로를 출발로, 노래 이외의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뿐 아니라, 함께 하는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가 무슨무슨 1주년 기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프로그램 로그를 보았습니다만, 이러한 프로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단발성 프로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프로의 첫 단계였음 합니다(김소현: kshsarang@hanmail.net)

남과 북을 비교해보면 으레 다른 말투와 옷차림을 생각하니 이 질적인 느낌이 먼저 다가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남쪽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가 북쪽에서도 불러진다고 하니 결코 남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요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가곡, 동요 등이 함께 불린다는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 갈라져 있다해도 정서만은 같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라 봅니다. 특히 민요를 발굴하고 고유악기를 창조, 개량하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김윤오: jump2027@freechal.com)

“남북공동선언 1주년기획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는 북한음악 소개를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북한음악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음악을 통하여 동질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공동의 노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며, 불려진 노래도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북한문화의 접촉으로 남북한의 문화적 거리감을 줄여주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질감 회복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느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르는 태도 등을 통하여 남과 북의 차이를 확인한 경우로 같은 문화적 접촉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문화적 이질감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감상하고 제출한 대학생들의 감상문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젊은이들의 일상을 소재로 한 「청춘이여」와 「마음에 드는 청년」에 대한 감상인데 영화감상을 통하여 남북한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삽입곡의 노래 제목 ‘꽃처럼 피어나라 청춘이여!’가 암시하는 것처럼 북한에서의 청소년 생활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청소년의 생활이 아닌 듯 하였다(ㄱ학생)

북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북한은 내게 매력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실망으로 다가온다(ㅇ학생)

하지만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나는 북한이 이제 지나칠 정도로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ㄱ학생)

그렇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이 북한영화를 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북한도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음을 이 영화를 보고 느끼게 된 것이다(ㄷ학생)

마음으로는 두려움을 버릴 수 없었던 내가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ㄱ학생)

내가 너무 북한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졌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ㄱ학생)

북한영화를 통하여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러가지였다. 대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영화의 정치적 성격과 서술구조, 그리고 연기를 비롯한 영화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활동의 본원적 기능을 무시한 채 체제의 유지와 국가에의 충성만을 강조하는 영화를 영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ㄱ학생)

배우들이 너무나 서투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 저 정도 연기라면 나도 할 수 있는데...(ㄷ학생)

우리들이 보기엔 유치하고 웃겨서 강의실이 떠나가라고 웃어댔다(ㄱ학생)

영화를 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 남한과 북한 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ㄱ학생)

영화가 상영되는 중간중간 강의실 이곳저곳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고, 나도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ㄱ학생)

영화를 감상하는 도중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웃음을 터뜨렸는데, 우리가 웃게된 가장 큰 이유는 영화에 나타나는 사랑 표현의 유치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 여기서 남과 북 사이에 그만큼의 문화적 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다(ㅇ학생)

비록 차이점을 확인하였지만, 그러한 차이가 반드시 거리감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아래의 학생처럼 차이점의 극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영화를 통하여 비록 조금이지만 남북한간의 문화와 관습등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ㄱ학생)

북한문화를 경험하면서 이질성을 확인하는 경우는 면접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소설을 읽은 후 행한 면접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도 앞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북한 소설의 지루함을 토로하였고, 장편소설을 읽은 몇몇 학생들은 끝까지 읽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작품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까닭에 몇몇 작품을 읽으면 흥미가 반감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소설의 경우는 작품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불멸의 력사’나 ‘불멸의 향도’와 같이 김일성·김정일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수령형상문학 계열의 작품을 읽은 학생들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심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다룬 소설에 대한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의 경우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북한음악을 예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자신의 학생들은 북한음악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며, 북한음악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북한음악을 폄하하는 경향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다.

장르별로 보면 특히 혁명가극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다. 혁명가극은 북한의 고유한 예술장르로서 내용 자체가 북한의 혁명전통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양식도 익숙하지 않으며, 내용에서도 거부감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연 시간도 3시간 안팎인 등 모든 면에서 남한 시민들이 익숙해하지 않은 장르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혁명가극을 감상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V. 북한문화수용과 문화교류

1. 북한문화 수용실태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문화의 수용실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이 지극히 적다는 것이다. 설문지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조사 시점까지 북한문화를 직접 경험한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교에서 북한문화를 배운 경험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남한 주민들이 북한문화의 기본적인 특성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문화의 접촉 경험이 적은 것은 교육과정 상의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문화를 접촉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법과 제도가 여전히 북한문화의 자유로운 접촉을 막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영화도 제한된 장소에서 상영이 가능하며, 북한 방송의 시청에도 제한 사항이 많다.⁶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문화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혹은 북한문화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은

61) 북한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은 현재 통일부 자료실뿐이다. 몇몇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북한영화를 볼 수 있지만, 현재의 법률구조 하에서 본다면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경우 개인이 위성방송 장치를 설치하고 시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개적인 시청도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시청 후 내용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실도 북한문화 접촉 경험을 적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이후 최초로 일반 극장에서 개봉한 ‘불가사리’의 경우 첫회 관람객이 천명이 되지 않아 조기 종영하였고,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률이 지극히 낮은 형편이다. 6·15 정상회담 이후 KBS에서 북한과 공동 제작한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시청률이 저조하여 정규 편성에서 제외되었다.⁶²⁾

둘째, 북한문화에 대한 태도는 사회집단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나 교사나 전문가들의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여진다. 초등학생까지 비교의 범주에 넣는다면, 젊은세대가 보다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한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은 청소년시기에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호감도와 더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북한문화를 접하는 태도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작품의 평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영화를 재미있게 본 이유에서 젊은 세대는 내용이 건전하거나 호기심이 충족된다는 등 실질적인 차원에서 원

62) MBC와 SBS는 1999년 8월 28일 오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현대팀-북한팀의 혼합 여자부·남자부 농구경기를 위성 생중계했으나, 시청률은 각각 2.7%, 3.3%였던 것으로 ‘미디어서비스코리아’의 시청률 조사에서 나타났다. KBS 1TV의 이날 밤 12시 녹화중계에서는 4.7%로 다소 높아졌으나, 다른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에 비해서는 하위권이었다. 이 농구중계 방송은 분단이후 최초로 현지 생방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문화 교류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나, 시청률이 지극히 저조하였다. <http://www.hk.co.kr/event/cinet/199909/movm15319.htm>.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경우 화요일 10시대로서 비교적 시청률 확보에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시청률을 경험하였던 경우가 8%에 불과하였다.

인을 찾고 있지만, 기성세대는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당위적인 차원에서 작품의 의미를 찾고 있다. 거부감의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젊은세대들은 지루하다거나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기성세대는 정치적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차원에 주목하거나, 민족적 당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북한문화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남북관계와 같은 문화외적 요소에 따라 문화 수용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작품들이 비교적 정치적 성격이 약한 것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전 선동에 중점을 둔 북한문화에 대해서는 집단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작품의 성격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성격이 적은 전람회 미술작품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고, 정치적 주장이 거의 없는 만화를 경험한 초·중·고학생들도 북한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적었다. 또한 소설을 읽은 사람들의 경우는 소설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문화에 대한 평가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혁명가극을 시청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였다.

북한의 문화 특히 문학예술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전·선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까닭에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표현 양식이나 강도는 작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조사에 활용된 작품 즉, 정치적 선전이 약하거나 완곡한 작품들이 북한문화의 주류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북한문화를 전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현재의 조사결과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관심과 같이 북한 문화를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북한문화를 경험한 미술전람회 관객들이 북한문화에 대하여 호감도가 훨씬 높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또한 문화적 이질화에 대한 태도나 남북한 관계에 따른 입장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북한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영향을 받는 경향은 개별적인 면접의 경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는 북한의 항일혁명문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북한문화의 긍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반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북한문화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⁶³⁾ 또한 1980년대 대학생들을 하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⁶⁴⁾

다섯째, 북한문화에 대한 우월주의적 태도, 즉 제국주의 문화론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영화를 보면서 내용에 상관없이 웃음을 터뜨린다는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문화에

63) 음악 전문가와의 면접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한 바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평론가 ㅎ씨는 북한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비교적 전반적인 음악 교수 ㄱ씨는 북한의 음악은 순수하며, 기술적 수준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64) 1980년대 학번으로 민중문화운동에 참여하였던 ㄴ씨는 「불멸의 력사」 충서를 포함하여 가장 혁명성이 높은 북한문학에 대해서도 감동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고, 역시 학생운동의 경험이 있는 ㄷ씨의 경우도 북한문화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대해서 전반적으로 유치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으며, 북한문화의 열등함을 지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국주의 문화론의 경향성은 특히 젊은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던지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던지 간에 전반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코드를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념적 잣대로 북한문화를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냉전구조하에 지속되어온 분단의식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젊은세대는 작품의 유치함을 지적하는 등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문화적 잣대로 북한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영화감상문이나 면접에서 남한의 60년대나 70년대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평가는 북한문화가 남한보다 뒤떨어졌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문화의 최근 변화 양상이 남한의 북한문화 수용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본 영화 ‘살아있는 령혼들’은 2000년에 제작되었고, 영화감상문을 제출한 학생들이 관람한 영화 ‘청춘이여’는 1998년 작품으로 북한문화의 최근 경향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반응은 1980년대 나온 북한영화 ‘사랑의 노래’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한 두 편을 읽고 더 이상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문화 내의 차별성을 인식 못하고 있으며, 북한문화를 전체론적인 관점에서⁶⁵⁾ 보는 경향

65) 전체론적 관점은 개별적인 특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범주적 특성에 맞추어서 개별적인 현상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약자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 경향이 자주 나타나는데 ‘여성들은 다 그렇다’라든지, ‘어느 지역사람들은 이

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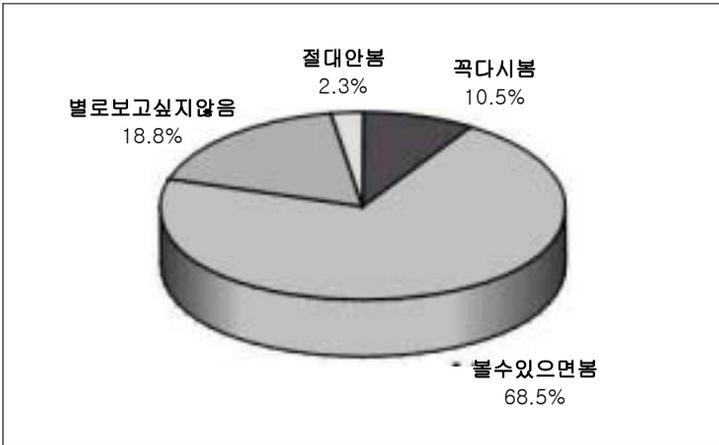
북한문화가 남한과 달리 급격하게 변하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문화의 시대적 차이가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북한문화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문화를 처음 경험함에 따라 문화적 내용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문화의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북한적 특수성을 북한문화에서 찾으려는 태도를 갖게 될 수 있고, 시대적 특성에 영향받지 않는 북한문화의 특성에만 관심이 모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남북문화교류의 함의

남북문화교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상호이해 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문화에 대한 수용실태를 보면 남북한 문화교류가 북한문화 이해에 순기능 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비록 북한문화를 경험한 이후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30%를 상회하며, 도리어 격차가 커졌다는 응답도 10%를 넘는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문화를 경험한 이후 북한문화를 다시 볼 의향이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림 9> 참조).

런 경향이 있다'라는 식의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9> 북한문화 감상 의향



볼 수 있으면 다시 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68.5%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다시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18.8%으로 꼭 다시 보겠다는 응답 10.5% 보다 많았으며,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2.3%가 있었다. 집단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40% 이상이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하는 등 젊은세대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를 경험한 이후에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2> 참조).

<표 22> 집단별 북한문화 감상 의향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꼭 다시 보겠다	인원수	5	3	29	37
	집단내 비율	6.2%	7.9%	12.4%	10.5%
	전체의 비율	1.4%	.9%	8.2%	10.5%
볼 수 있으면 다시 보겠다	인원수	43	31	167	241
	집단내 비율	53.1%	81.6%	71.7%	68.5%
	전체의 비율	12.2%	8.8%	47.4%	68.5%
별로 다시 보고 싶지않다	인원수	26	4	36	66
	집단내 비율	32.1%	10.5%	15.5%	18.8%
	전체의 비율	7.4%	1.1%	10.2	18.8%
절대 보고싶지 않다	인원수	7		1	8
	집단내 비율	8.6%		.4%	2.3%
	전체의 비율	2.0%		.3	2.3%
전체	인원수	81	38	233	352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23.0%	10.8%	66.2%	100.0%

문제는 조사 대상자들이 경험한 작품들이 비교적 정치적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은 작품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문화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혁명성이 강한 작품을 접촉하는 경우는 북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남북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소극적이 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젊은세대가 상대적으로 북한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문화교류의 사회적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현단계에서는 북한문화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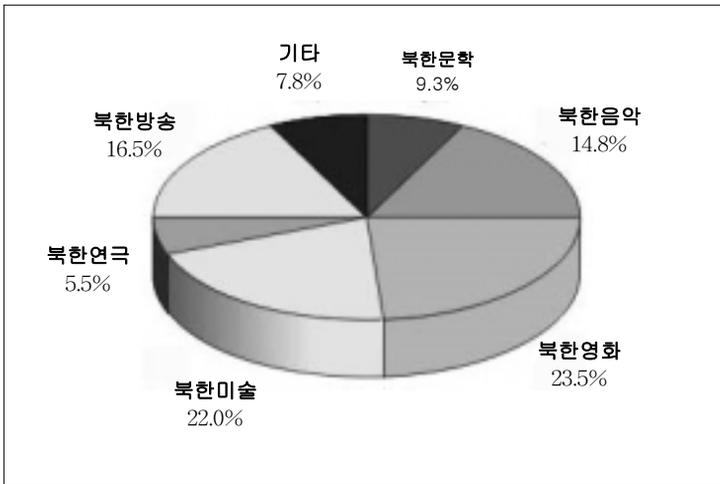
한 경험이 거의 없는 반면, 북한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문화에 대한 태도도 변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문화 수용태도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차별적인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문화에 수용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남북문화교류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교류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류과정에서 경험한 북한문화를 가지고 북한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문화교류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북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 교류 확대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화의 경험확대는 직접적으로 북한문화를 접촉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이나 사회교육 그리고 언론 등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문화의 특성이나 변화 과정 등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북한문화는 남한문화와의 성격이 다르며,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 북한문화의 기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문화교류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호기심 충족이나 각자가 갖고 있는 북한인식을 재

확인하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교류의 궁극적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북한문화가운데 어떤 분야를 경험하길 원하는가를 수용자들의 의사를 알아본 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경험하고 싶은 북한문화 장르



상대적으로 영화(23.5%)나 미술(22.0%)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북한방송(16.5%), 그리고 북한음악(14.8%)과 북한문학(9.3%)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영상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학이나 연극 등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남한의 문화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문화를 경험하더라도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비교적 경험하기 쉬운 장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 혹은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문화 경험에 많은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수용자의 요구를 문화교류의 우선 순위를 규정하는 것도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과를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집단별로 문화교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북한문화의 장르는 집단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표 23> 참조). 교사들의 경우는 영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대학생들은 북한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등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따라서 문화교류를 단순히 시행하기보다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부합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3> 경험하고 싶은 장르

		집 단			전체
		고등학생	교사	대학생	
북한 문학	인원수	6	3	23	32
	집단내 비율	7.2%	8.8%	10.1%	9.3%
	전체의 비율	1.7%	.9%	6.7%	9.3%
북한 음악	인원수	22	7	22	51
	집단내 비율	26.5%	20.6%	9.6%	14.8%
	전체의 비율	6.4%	2.0%	6.4%	14.8%
북한 영화	인원수	23	14	44	81
	집단내 비율	27.7%	41.2%	19.3%	23.5%
	전체의 비율	6.7%	4.1%	12.8%	23.5%
북한 미술	인원수	12	6	58	76
	집단내 비율	14.5%	17.6%	25.4%	22.0%
	전체의 비율	3.5%	1.7%	16.8%	22.0%
북한 연극	인원수		1	18	19
	집단내 비율		2.9%	7.9%	5.5%
	전체의 비율		.3%	5.2%	5.5%
북한 방송	인원수	8	1	48	57
	집단내 비율	9.6%	2.9%	21.1%	16.5%
	전체의 비율	2.3%	.3%	13.9%	16.5%
기타	인원수	12	2	13	27
	집단내 비율	14.5%	5.9%	5.7%	7.8%
	전체의 비율	3.5%	.6%	3.8%	7.8%
무응답	인원수			2	2
	집단내 비율			.9%	.6%
	전체의 비율			.6%	.6%
전체	인원수	83	34	228	345
	집단내 비율	100.0%	100.0%	100.0%	100.0%
	전체의 비율	24.1%	9.9%	66.1%	100.0%

문화교류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교류 대상의 선택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얇은 작품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거부감이 있다. 따라서 장르 선택 뿐만 아니라 장르 내에서도 남한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교류하고, 교류의 대상을 점차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가장 좋은 예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영화 상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나타났듯이 아이들은 북한 만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적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만화 감상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들이 본 만화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는 거의 없고, 교육적 메시지가 강조되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집단별로 교류의 목적이나 방안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과거 냉전적 대결구조에 익숙한 세대들은 정치적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북한문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냉전의식을 약화시키고, 화해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반면에 젊은세대들은 자극적인 자본주의 대중문화에 익숙한 까닭에 북한문화를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세대들이 북한문화를 경험한 이후 관심이 떨어지는 현상을 고려하여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 자유롭게 때문에 평화적인 공동체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여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북한문화에 대한 수용태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교류가 북한에 대한 이해증진이나 남북한 화해 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 문화교류가 상호이해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문화에 대한 입장차이가 문화교류 과정에서 증폭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이나 또 다른 남북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문화교류를 단순히 남북문제의 차원에서만 추진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문화 구조 정착이라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문화 수용과정에서 북한문화를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등 북한문화를 열등하게 평가하는 제국주의 문화론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문화교류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한의 문화적 풍토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적 공존을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북한문화의 수용과정을 통하여 역으로 남한의 문화적 상황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남북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문화의 이해 증진, 남북한 화해 협력의 분위기 정착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통일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한 내 문화적 토양을 풍부히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북한문화 수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남북문화교류도 이러한 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통일의 방안과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단계에서 남한사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사항은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적대적 상황을 평화적 상태로 전환하고, 화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문화교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교류를 통하여 남북한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교류가 확대되는 동시에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화교류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역으로 문화교류의 활성화가 남북관계를 풀어 나아가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도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문화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문화교류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북한문화의 수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논리가 전혀 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문화와의 접촉이 북한문화를 이해하고,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교류의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분단기간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문화적 접촉의 경험도 거의 없는 현실에서 급작스러운 문화교류는 이질감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정착하거나 사회문화적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문화의 수용실태 조사결과를 볼 때, 남북한 문화의 내용상의 차이보다 반세기 동안 지속된 분단구조의 영향, 남북한 문화상황의 차이 등 외적 요인이 북한문화 수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 등의 적대적인 관계의 문화갈등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남북한 사회발전 단계의 차이에 의해서 문화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다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문화교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수용실태를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북한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문화 접촉을 제한하는 각종 법령을 개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과정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작품의 성격, 집단의 성격에 따라 북한문화 수용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문화를 소개하거나 문화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문화를 우월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문화와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도나 체제 그리고 이념은 하나가 된다는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통일이 목표가 되지만, 사회체제는 공동

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통합되어야한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현 체제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문화관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적 차원의 통일은 통합이 아닌 다원적 문화가 보장되는 공존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북한문화의 이해와 교류과정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0.
- 우실하.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문화 바로 읽기」. 서울: 소나무, 1997.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4.
- 장정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학예술 업적 11: 군중문학예술 의 찬란한 개화」.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2, 3」.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4.
- 최승운 외. 「문화운동론 2」. 서울: 공동체, 1986.
- Feldman, Allen. *Formations Viol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 Gray, Peter. 「아일랜드 대기근」. 장동연 역. 서울: 시공사, 1998.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충돌론」. 이희재 옮김. 서울: 김영사, 1997.
- Jandt, Fred 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cond edition*. London: Sage Pub., 1998.
- Jandt. Fred 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econd edition*. London: Sage Pub., 1998.
- Lauer, R. H. *Social Change*. Boston, Allyn and Bacon, 1973.

- Moore, W. E. *Social Change second edition*. N.J.: Prentice-Hall, 1974.
- Müller, Harald *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 『문명의 공존』. 이영희 역. 서울: 푸른숲, 2000.
- Ogburn, Willan F. *Social Change*. N.Y.: Viking Press, 1922.
- Said, Edward W.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1991.
- _____. *Cultural Imperialism*. 『문화제국주의』. 김성곤·정정호 역. 서울: 도서출판 창, 1995.
- _____. *The Crisis of Oreintalism*.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성일권 편역. 서울: 김영사. 2001.
- Warren, Kay B. eds.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Colorado: Westview Press, 1993.

2. 논문

- 고부웅.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http://member.namo.co.kr/~hrsong/text3-4.htm>.
- 구춘권. “문명의 충돌과 공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두 가지 전망.” <http://jbreview.jinbo.net/journal/0012/chun-keun.html>.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호, 1992
- 김성남. “우리의 붉은기.” 『조선영화』 268, 1995.
- 김정욱. “사회주의붉은기는 언제나 하늘 높이 휘날리리.” 『조선영화』 266, 1995

- 리성덕. “로동계급의 생활철학을 구현한 세계적인 걸작(1).” 『조선영화』 267, 1995.
- 박지향. “아일랜드 역사서술: 민족주의와 수정주의를 넘어서.” 『역사비평』 50, 2000 봄.
- 신기명. “로동계급주제영화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 『조선영화』 265, 1995.
- 유영철.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http://www.kida.re.kr/woww/special/ira.htm>.
- 이영미. “김연자 공연이 말해주는 것: 2001년 상반기 대중적 공연물 교류의 허와 실.” 문화정책개발원 주최 「2001 통일문화정책 제6차 포럼」 발표논문, 2001. 7.
-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개념과 사회적 역할의 차이.” 『통일연구』 2권2호, 1998.
- _____. “북한의 남한문화 인식.” 『통일논총』17. 숙명여자대학교, 1999.
- _____.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통일시론』. 1999 봄.
- _____.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당대비평』 12, 2000 가을.
- 황익주. “아일랜드에서의 일상적 사교활동과 사회집단 분화: 인류학적 사례연구.” 『지역연구』 3권 4호, 1994 겨울.
- _____.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아일랜드 사회의 변화와 적응: 니나 (Nenagh)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권 2호, 1998 여름.
- _____. “유럽통합의 진전과 아일랜드 민족정체성의 변화: 인류학적 사례 연구.” 『국제·지역연구』 9권3호. 2000 가을.
- 최척호. “남북영화교류와 북한 영화계 현황.” 문화정책개발원 주최 「

- 2001 통일문화정책 6차포럼, 발표논문, 2001. 7.
- Aretxaga, Begoña. "Striking with Hunger: Cultural Meaning of Political Violence in Northern Ireland,"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ed. by Kay B. Warre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3.
- Hanchard, Michael. "Culturalism Versus Cultural Politics."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ed. by Kay B. Warre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3.
- Huntington, Samuel P.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 3. Summer(1993).
- Warren, Kay B. "Interpreting La Violencia in Guatemala."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ed. by Kay B. Warre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3.
- Wichert, Sabine. *Northern Ireland Since 1945, Second edition*. London: Longman, 1999.
- Wood, Davida. "Politics of Identity in a Palestinian Village in Israel." in *The Cultural Violence Within: Cultural & Political Opposition in Divided Nations*. ed. by Kay B. Warre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3.

5.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말해 주십시오.
오
6.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보면서 남북한 문화가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차이가 거의 없다. ② 차이가 조금 있다.
③ 차이가 많이 있다. ④ 차이가 대단히 많다.
7.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보면서 남북한 언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까? ()
① 차이가 거의 없다. ② 차이가 조금 있다.
③ 차이가 많이 있다. ④ 차이가 대단히 많다.
8.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을 보고 나서 북한에 대한 거리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까? ()
① 이전 보다 거리감이 더욱 커졌다.
② 이전 보다 거리감이 조금 커졌다.
③ 차이가 없다.
④ 이전 보다 거리감이 조금 줄었다.
⑤ 이전 보다 거리감이 많이 줄었다.
9. 이전에 다른 북한영화나 만화 혹은 소설을 본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10. 본 적이 있는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1) 보았던 영화나 만화 혹은 책의 제목을 말해 주세요.

- (2) 보았던 영화나 만화 혹은 책은 재미 있었나요? ()
- ① 매우 재미있었다 ② 조금 재미있었다
③ 조금 재미없었다 ④ 정말로 재미없었다
11. 앞으로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다시 보고 싶은가요? ()
- ① 꼭 다시 보고 싶다 ②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보겠다.
③ 별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④ 절대 보고 싶지 않다.
12.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 가운데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노래나 영화 그리고 소설 어떤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문학 예술인(배우·가수 포함)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 3.1 북한 문학예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써 주세요)?
- 4.1 텔레비전에서 북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나요? ()
- ① 없다. 있다.
- 5.1 (있다고 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 인가요?
- 6.1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나라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
- ① 정말로 맞는 말이다 조금 맞는 말이다
② 조금 틀리는 말이다 정말로 틀린 말이다
- 7.1 “북한과 남한은 한 민족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 ① 정말로 맞는 말이다 조금 맞는 말이다
② 조금 틀리는 말이다 정말로 틀린 말이다

- 8.1 북한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무엇:)
- 9.1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 ① 가능하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② 천천히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 ③ 통일되면 좋지만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통일이 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 ⑤ 통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20.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
- ① 학교 ② 신문 ③ 방송 ④ 인터넷 ⑤ 관련 서적
 - ⑥ 기타(무엇:)
21. 학교에서 북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다. ② 한과목 ③ 두과목 ④ 세과목 이상
22. 다음 중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 것의 옆에는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 ① 북한의 문학 () ② 북한의 음악()
 - ③ 북한의 영화(만화영화) () ④ 북한의 미술 ()
 - ⑤ 북한의 연극() ⑥ 북한의 방송 ()
23. 다음 중 가장 보거나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
- ① 북한의 문학 ② 북한의 음악 ③ 북한의 영화(만화영화)
 - ④ 북한의 미술 ⑤ 북한의 연극 ⑥ 북한의 방송
 - ⑦ 다른 무엇()
24. 다음 중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김정구 ② 이미지 ③ 조용필 ④ 양희은 ⑤ 김건모
- ⑥ H.O.T.

25.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26. 다음의 물음에 답해주세요.

- ① 나이: ()살
- ② 성별: 남성() 여성()
- ③ 직업: () 학생은 전공 ()
- ④ 주소: ()시·도 구 ()
- ⑥⑤ 종교: () 학력 ()
- ⑦ 군대경험: 유() 무()
- ⑧ 연수입 ()만원

설문 2: 미술관람객 대상

1. 구경하신 북한 미술작품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

- ① 매우 좋았다.
- ② 조금 좋았다.
- ③ 별로 안좋았다.
- ④ 매우 안좋았다.

2. 2번 질문에서 ①②번 응답한 분만 해당합니다. 왜 재미 있었나요?

- ()
- ① 내용이 건전하다
- ② 북한(혹은 북한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 ③ 민족적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다.

- ④ 형식이나 기교나 마음에 들었다.
 - ⑤ 기타 (무엇:
3. 2번 질문에서 ③④번 응답한 분만 해당합니다. 왜 재미 없었나요?
()
- ① 단순하다.
 - 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③ 획일적이다.
 - ④ 형식이나 기교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 ⑤ 기타(무엇:)
4. 구경하신 작품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북한 미술 작품을 말해 주세요.
5. 북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말해 주십시오.
6. 북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남북한 문화가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
- ① 차이가 거의 없다.
 - ② 차이가 조금 있다.
 - ③ 차이가 많이 있다.
 - ④ 차이가 대단히 많다.
7. 북한 미술 작품을 보면서 남북한 미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까? ()
- ① 차이가 거의 없다.
 - ② 차이가 조금 있다.
 - ③ 차이가 많이 있다.

- ④ 차이가 대단히 많다.
8. 북한의 미술 작품을 보고 나서 북한에 대한 거리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까? ()
- ① 이전 보다 거리감이 더욱 커졌다.
 - ② 이전 보다 거리감이 조금 커졌다.
 - ③ 차이가 없다.
 - ④ 이전 보다 거리감이 조금 줄었다.
 - ⑤ 이전 보다 거리감이 많이 줄었다.
9. 이전에 다른 문학예술 작품을 본적이 있나요? ()
- ① 있다 ② 없다
10. 본 적이 있는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 (1) 보았던 문학예술 작품을 말해 주세요
- (2) 보았던 영화나 만화 혹은 책은 재미 있었나요? ()
- ① 매우 재미있었다
 - ② 조금 재미있었다
 - ③ 조금 재미없었다
 - ④ 정말로 재미없었다
11. 앞으로 북한 문학예술 작품을 다시 보고 싶은가요? ()
- ① 꼭 다시 보고 싶다
 - ②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보겠다.
 - ③ 별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 ④ 절대 보고 싶지 않다.

12.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가운데 이는 것이 있으면, 모두 적어주십시오. 노래나 영화 그리고 소설 어떤 것이나 상관없습니다. 문학예술인(배우·가수 포함)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13. 북한 문학예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써 주세요)?
14. 텔레비전에서 북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나요? ()
① 없다. 있다.
15. (있다고 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 인가요?
16.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나라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
① 정말로 맞는 말이다 조금 맞는 말이다
② 조금 틀리는 말이다 정말로 틀린 말이다
17. “북한과 남한은 한 민족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정말로 맞는 말이다 조금 맞는 말이다
② 조금 틀리는 말이다 정말로 틀린 말이다
18. 북한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무엇:)
19.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가능하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② 천천히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③ 통일되면 좋지만 꼭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통일이 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 ⑤ 통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20.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② 신문 ③ 방송 ④ 인터넷
⑤ 관련 서적 ⑥ 기타(무엇:)
21. 학교에서 북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한과목 두과목 세과목 이상
22. 다음 중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 것의 옆에는 동그라미를 해 주
세요?
① 북한의 문학 () 북한의 음악()
② 북한의 영화(만화영화) () 북한의 미술 ()
③ 북한의 연극 () 북한의 방송 ()
23. 다음 중 가장 보거나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 주
세요 ()
① 북한의 문학 북한의 음악 북한의 영화(만화영화)
② 북한의 미술 북한의 연극 북한의 방송
③ 다른 무엇()
24. 다음 중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
까? ()
① 김정구 이미자 조용필 양희은 김진모
② H.O.T.
25.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26. 다음의 물음에 답해주세요.

- ① 나이: ()살
- ② 성별: 남성() 여성()
- ③ 직업: () 학생은 전공 ()
- ④ 주소: ()시·도 구 ()
- ⑤ 종교: () ⑥ 학력 ()
- ⑦ 군대경험: 유() 무()
- ⑧ 연수입 ()만원

설문 3: 초등학생 대상

- 1. 지난번에 본 북한 만화영화 이름을 기억하면 말해 주세요.
- 2. 지난번에 본 북한 만화영화가 얼마큼 재미있었습니까? ()
 - ① 매우 재미있었다 조금 재미있었다
 - ② 조금 재미없었다 정말로 재미없었다
- 3. 북한 만화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을 이야기 해보세요.
- 4. 북한 만화영화와 우리 만화영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 5. 이전에 북한영화나 만화 혹은 책을 본적이 있나요? ()
 - ① 있다 없다
- 6. 본 적이 있는 학생만 대답해 주세요.

- (1) 보았던 영화나 만화 혹은 책의 제목을 말해 주세요.
- (2) 보았던 영화나 만화 혹은 책은 재미 있었나요? ()
- ① 매우 재미있었다 조금 재미있었다
② 조금 재미없었다 정말로 재미없었다
7. 앞으로 북한영화나 만화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가요? ()
- ① 꼭 다시 보고 싶다
②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보겠다.
③ 별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절대 보고 싶지 않다.
8. 텔레비전에서 북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나요? ()
- ① 없다. 있다.
9. (있다고 한 학생만 대답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무엇 인가요?
10.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나라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세요? ()
- ① 정말로 맞는 말이다 조금 맞는 말이다
② 조금 틀리는 말이다 정말로 틀린 말이다
11. 북한을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 북한 어린이와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1. 북한 어린이와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 ① 가능하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 ② 천천히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 ③ 통일되면 좋지만 꼭 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통일이 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3. 전에 학교에서 북한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없다.
4. 다음 중 학교에서 배운적이 있는 것의 옆에는 동그라미를 해 주세요?
 - ① 북한의 소설 ()
 - ② 북한의 시 ()
 - ③ 북한의 음악 ()
 - ④ 북한의 영화(만화영화) ()
 - ⑤ 북한의 미술 ()
 - ⑥ 북한의 연극 ()
 - ⑦ 북한의 방송 ()
5. 다음 중 가장 보거나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하나만 골라 주세요 ()
 - ① 북한의 소설 북한의 시 북한의 음악 북한의 영화(만화영화)
북한의 미술 북한의 연극 북한의 방송 다른 무엇(써주세요)

6. 요즘 제일 재미있게 보는 만화 영화의 제목을 말해 주세요.

7. 요즘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름 하나만 써주세요.

8. 다음의 물음에 답해주세요.

① 학교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② 몇 학년입니까? () 학년

③ 남학생입니까() 여학생입니까()

④ 주소를 말해 주세요. ()시 ()구 ()동